朝鮮日報
夕刊 六日(木)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피에트리前海相 組閣工作에着手

下院第一黨인急進社會黨不參加와 社會黨의財政獨裁權反對表明으로 라발氏는組閣을斷念

【電通巴里五日發】라발氏는 一旦組閣을 受諾하엿스나 드듸여 失敗하엿슴으로 르부랑大統領은 五日夜에이르러 前海相 피에트리氏에對하아組閣을依囑하바 同氏는 此를 受諾하고 即時組閣工作에着手하얏다

피에트리氏

【巴里五日發聯合】라발外相은 르부랑大統領의要請에基하야 後繼內閣組織에對하야 朝來社會黨 急進社會黨等左翼各派와 協議를遂하고잇는데 各派의全的支持를 確保하게되지못하야 마츰내組閣을斷念하고 午後八時 엘리제宮에伺候하야 後繼內閣組織의大命을 辭退한다는旨를 르부랑大統領에게申請하엿다

【電通巴里五日發】後繼內閣組織의 委囑을바든 前外相라발氏는 即時組閣에 着手하려하엿스나 下院의 第一黨인 社會急進黨이 라발氏를 首班으로하는 內閣에는 參加치안키로 決定하고또 社會黨黨首로앙베르氏는 라발氏에對하야 同黨이 財政獨裁權에 反對한다는 旨를 回答하엿슴으로 라발氏는 即時組閣을 斷念하고 大統領의 委囑에 應하기困難하다는 旨를述하엿다 따라 大統領은 前海相피에트리氏를 招致하고 組閣을 依賴하엿다 여기서 同氏는 此를受諾하고即時組閣工作에 着手하엿다

財政獨裁權獲得 依然困難한形勢

피에트리氏의組閣만은可能 法貨의前途依然暗澹

【電通巴里五日發】組閣의 委囑을바든 피에트리氏는 르부랑大統領에對하야 六日午前中에組閣할수잇는지 업는지 確答을할것을 約束하야 엘리제宮을 辭退하얏다 피에트리氏는 플랑당元首相과함께 共和黨左派에 屬하야 組閣은 今回가처음이나 政府의 일은무어이든지 다안다는人物로 더욱財政問題에對하야는 議會內最高權威者의 一人일뿐만아니라 左右兩派와의 關係도조흠으로 組閣에 成功할 可能性은잇스나 플랑당 부송兩內閣이꺼꾸러진 財政獨裁權을 엇기는 亦是困難할듯함으로 佛國財界의前途는暗澹하야 推移가 注視된다

【巴里五日發聯合】에리오無任所相은 르부랑大統領의 要請에도 不拘하고 後繼內閣 組織을 辭退하고 急進社會黨 院內總務이본·데르보스氏와함께 後繼內閣의首班으로 海相피에트리氏를推薦하엿다 르부랑大統領은 右推薦에基하야 五日深更피에트리海相을엘리제宮에招致하고 組閣을委囑하엿다 피에트리海相은受諾을 留保하고엘리제宮을退下하야直時急進社會黨의 領袖와會見을遂하엿는데 會見後後繼內閣組織에對한 進行방침을言明하고 組閣方針에對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一、急進社會黨의 支持를基礎로 余는法貨救濟內閣을 組織할

一、新內閣은 두메르그·플란당兩內閣과同樣으로 中央과穩健한左翼各派를基礎로 特히急進社會黨의文治派를奪回하야 下院에 多數를確保할것

一、法貨의危機를 打開키爲하야 議會에緊急權限의賦與를 要求할 것

피에트리海相은 以上의方針에依하야 五日深更에 直時組閣에着手하엿다

社會、共産、急進黨의 左翼合同內閣劃策

急進社會黨의態度如何에따러成立 社會黨에서革命的宣言發表

【巴里五日發聯合】後繼內閣을中心으로 社會黨 共産黨 急進社會黨을聯合한 左翼各派의 暗躍이 漸次하야 所謂左翼大合同을理想으로하는 左翼內閣에 勇往邁進하고잇다 即五日午前左翼各派의 進步會議를 開催하고 時局打開策을 協議한結果 爲先急進社會黨에 對하야 質問을 提出하얏는데 此에對하야 社會黨은 宣言을發表하엿다

一、社會黨은 資本主義(諸資本을含함)擧國一致內閣에 絶對參加치안코 어데까지 左翼聯立內閣實現에 邁進함

一、法貨危機打開를 名目으로財政上全權을 附與할提案을 斷乎排擊함

一、財政上 危機打開策으로 思惑的信用攪亂을 嚴重取締하고 特히 爲替市場의 定期取引을 禁止하기를 主張함

一、恒久的財政經濟策으로 電氣事業、保險業其他基本產業의國有를 斷行하고 一定한條件에잇서서는 佛國銀行의 國有도 不辭함

一、失業救濟를爲하야 國家機關을設置하고 四十時間의 勞働制를確立하고 더욱公共事業을 이르킬것

一、時局을打開키爲하야下院을解散하고比率代表制에依하는總選擧를施行하고 더욱軍事的팟쇼團體를解散할것을要求함

以上革命的宣言은 從來三黨의 共一黨으로한黨派가 抱懷한主張에不外하고 急進社會黨이 叢議에서宣言을支持하면 左翼合同內閣이成立되는것이라하야 急進社會黨의態度는注目되여잇다

左翼合同一頓挫 피內閣成立有望

【巴里五日發聯合】急進社會黨은 社會黨과의 聯合會議를 압두고 五日深更院內에서黨大會를開催하고 社會黨의宣言에對하야 協議를遂한結果 右宣言에는 急進社會黨으로到底히 受諾할수업는項目이不少함으로 受諾할수업다는데 意見一致되엿다 그리하야左翼大合同의形態는 玆에一頓挫를招來하야 피에트리海相의組閣前途에多大한 光明을發見하게 되엿다

平價切下主張의 新聞社를襲擊

◇巴里市民激昂

【電通巴里五日發】佛國國民은財政危機에 伴한平價切下의 幻影에煩悶하야 戰戰兢兢한狀態인데 五日夕刻라발氏의 組閣失敗의뉴—스가 新聞을通하야 傳播된直後의 午後七時頃法貨擁護를絶呼하야 街頭(데모)를 行하고잇든 約百名의 市民은 突然푸티주르날紙를 襲擊하야 窓을破壞하는等의狼藉한行動을 하얏다는 急報에依하야 달려간 警察隊때문에暴民의 多數는解散되엿스나 八名은 檢擧되는等 一時는大騷動이잇섯다 푸티주르날紙의 社主레이몬드파트노드르氏는 일즉부터平價切下를 主張하고잇슴으로 市民으로부터反感을산모양이다

피氏內閣도 財政獨裁權要求

【巴里六日發聯合】피에트리海相은 刻下의金融危機를 打開키爲하야組閣工作完了時는 어데까지 財政經濟上 獨裁權限을議會에要求할方針을取하고 五日深更左와如히言明하엿다

現下의情勢에잇서서는 何人이時局을 擔當한다고해도 財政上權限이 絶對必要하다

文化建設私議 (二)

未來를지나今日에!

安在鴻

×

無何先生 足下

現代朝鮮의 急進的인 先驅者로 自任하는者中에는 朝鮮的인것은 民族的인것을 主張하는者에對할때에 흔히는 문득 그것은 小부르的排他主義이니 反動的保守主義이니 또는感傷的復古主義이니 하고 더러노코 非難하려는 態度가잇슴니다 하기야 이처럼 急進前進하기에 바람이나는것은 여간반가운일이 아니겟스나 그러나 嚴正한現實에 即하야보면 朝鮮的이거나 혹은民族的인것을 關心 討究및工作 하는것이라고 모두반듯이 反動保守거나 感傷的 復古主義거나가 아니오 떨어서 小부르的排他主義만이 아닙니다 實際로서는 後進落伍的인어떠한國民혹은民族에잇서서는 自國的 또는 民族的인 衝動 覺醒 및念願이 도리어進步的 躍進的 그리고 世界的으로 되는것이니 이를테면 高宗甲申 改革黨의 事變가튼것은 그形態는 不純한바잇섯스나 淸國의 封建的帝國主義에 反抗하야 朝鮮的인 무엇을意圖하는 進步的인것인한편으로 世界的인 進取를追求하려는 微弱하나마의衝動이 잇섯든것이오 이運動의標本으로되엇슴 明治初年 日本維新의運動은 역시그國民的自覺에서 日本的인衝動이 熾烈하여진재 그대로 開國進取라는 世界에의 開放을 熱要하엿든것이니 이러한例는 東方의 後進諸國民의 사이에는 누구나모두 同一한 코—쓰를지난것입니다 다만그國民的地位와力量이 獨自的國家主義反動勢力으로 國際間에 그嚴然한波動을 일으킬者도잇고 혹은 特殊한處地에 잇는民族으로 그저다만 眞正한 再覺醒의民族으로만되어 다음날의 洗錬된 生活集團으로서의 一定한 文化的彈力을 涵蓄하는데에 그치는者의 區別이 다를뿐입니다 이點이 嚴正한 認識을 要하는바입니다

×

그리고 二十世紀 現段階의 人類文化의特徵은 各個民族이 世界的大同의方向 即國際主義的方向에 向하야 自動的求心運動을 하고잇는것이 하나이오 그反面에 各個民族이 이世界的 即國際的 影響下에잇스면서 오히려각각 各自의民族文化로서 純化 深化하려는 意欲및그努力中에 잇는것입니다 即가장穩健妥當한 各國民 各民族의 態度는 民族으로 世界에——世界로民族에! 交互되고調合되는 民族的國際主義——國際的民族主義를 形成하는狀勢이니 이를細分하여말한다면 가장 偏近하게 相對되는 一國家一國民과의 關係에 그러하야 주면서밧고 다두면서배우는 連續하는 途程에서 自己의 向上과發展이잇고 獲得과生長이 잇는것이오 全世界全國際에處해서의 一國民一民族으로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人類의文化가 그交通 通信의 急速한發達에딸어 멀지안흔未來에 國家와民族의 界線을撤廢하는時期가잇슴이 『未來의形相』이라고치더라도 今日에 吾人은 우선世界의 一民族으로서의 文化的 純化向上의길을 强猛하게 걸어나아가고잇서야할일입니다 그런故로吾人은 孤獨한舊朝鮮에서 出發하야(조卄나 글으거나出發한지는 벌서오랫섬이지만)世界의곳까지돌아『世界로부터 朝鮮에!』로 再認識의 歸來를하는것이오 악착스러운 無我平凡한今日에서 未來의 新時代에까지 내달엇다가『未來를지나今日에!』로 再決心에 依한再出發의今日에 歸來하여야하는것입니다

×

吾人人類는 늘未來를 바라보면서 今日인現實에 살어나아가는것이니 生成의由來인 過去의歷史와 行進할未來인 彼岸의目標가 모두『今日』인 現實에서 一定한 目的意識의形態로서 日常生活로써 具體實踐되는것입니다 그리고未來의 때문의 一定한計畫的 實踐의 民族이란것은 혹數十年 혹十年 五年으로 되는것입으로 急進先驅로自任하는者 만일 目的의未來에沒頭하야 이實踐의今日을 輕侮하는것은 尋常치아니한 過誤인것입니다 鄕土인自然과 民族生成의 由來인歷史와는 今日의實生活인現實과 아울러變動이 퍽은만흔 이뒤의時代에서도 相當尊重한 條件으로남을것이오 또는 보담큰文化의圈——巨大한國家의품속에 掌握되는동안에도 當然히尊重되어야할 文化的約束이오또相互의利益이오 安全인것이며 吾人으로서도 이것을 意識하고 工作할것입니다

맥도날드英首相 七日辭表捧呈

後任은뽈드윈現樞相

【電通倫敦五日發】맥도날드英首相은金曜日(七日)午前박킹검宮殿에伺候하야 健康이맘갓지안타는理由로辭表를捧呈할터로 英帝는直時뽈드윈樞相에 大命 降下하야 同樞相은 即刻新內閣閣員名簿를捧呈하고 此를 發表할터이다 그리고 新內閣은前內閣과大同小異할것으로 豫想된다 맥도날드首相은 樞密院議長으로서留任될模樣이다

【寫眞은맥首相】

六空軍根據地案 米下院可決

戰略上으로不少貢獻

【華盛頓五日發聯合】米國下院은 五日空軍根據地六個所 增設案을 可決하고 直時上院에回附하엿다 本根據地創設案은 陸軍省의起草에關한것으로 其內容은左와如한 것이라고 解釋되다

一、大西洋岸北部
一、大西洋岸南部
一、카립海東南部
一、알라스카
一、太平洋岸北部
一、록키山麓

의六個所에空軍根據地를 增設하다 以上六大空軍根據地는 此를中心으로 組織될諸根據地와가티 戰略上 訓練上不少한 意義를갓는 것인데 特히左의特徵이잇다

가、알라스카、알유시안群島의防衛
나、파나마運河地帶의防衛
다、太平洋北部와 알라스카와의 連絡防衛
라、알라스카에잇서 嚴寒飛行訓練
마、大西洋岸濃霧地帶의 飛行訓練

印度政府改組法案 下院大多數可決

十七年의懸案이에解決

【倫敦五日發聯合】印度政府改組法案은 五日下院本會議에서贊成三百八十六票反對百二十二票의大差로써 可決되여 即日上院에回附되엿다 右法案이上院通過時는 直時陛下의御裁可를 仰하게될터로七月夏期休暇에入하기前에 法案의 成立을보게될模樣이다 一九一八年以來後十七個年에及하는 英國帝國의 懸案인印度憲法의改正도 此로써解決되는셈이다

河遵化縣長罷免

【電通天津五日發】孫永勤軍을援助한 遵化縣長河孝怡는 四日北平에서召喚取調를바든後 罷免되엿다

話題解說

갑프

◇ 지난二十日附로 朝鮮左翼藝術團體인「카프」(朝鮮프롤레타리아藝術同盟)이 當局의 勸告와 또 客觀的情勢의 不利로 解散되엿다。「카프」란말은 英語의 Federation of Korean Proletarian Artists의 頭字를 떼인것이니 납프、갈푸는 各各日本、露西亞의푸로藝術同盟을 말한다。

◇ 이갑프는 元來 焰群社派 宋影、崔承一、李赤曉等과 파스큐라會派인 朴英熙、金基鎭、故李益相等으로 一九二五年九月 그組織을 보게되엿다。이리하여 그들은 朝鮮에 잇서서의 無産階級藝術運動의 前衛的 行動을 開始하게되엿섯다。

그러나 그後 二六年十一月에 이르러서는 非活動分子로認證되는同時 故李益相等數人을除名하는同時 趙明熙、李箕永等을 入會식혀좀더 活氣를 띄우게 되엿다。그러는中 二七年여름 東京에잇든 第三戰線派인 趙重滾、金斗鎔、韓植、洪曉民等이 歸國하자 갑프와 提携하게되고 機關誌를利用해서 갑프와 가티 提携하야 좀더 그陣容을 整備히하엿다。

◇ 그後一九三〇年에 이르러는 文學、美術、演劇等의 各部署를 設하고 좀더 組織的으로 藝術各部門에 그活動을 活潑히 하려하엿다

그러나 文學運動以外의 各部門의 活動은 그리活潑치못하엿다。그리다가 一九三〇年 幹部派와 反幹部派의 軋轢으로그機關紙의 編輯兼發行人이든 林和、李北鳴等은 東京으로 가 그後 國外 李赤曉、閔內成等은 本部는 其後 集團이란 雜誌를 發行하여 푸로藝術을 鼓吹하여다。其以前에 잇서서도 文藝運動、藝術運動이란 푸로藝術 文化發展에 努力한바 잇거니와 이것들도 모두단명을 거듭하지 못하고 廢刊하엿다。

◇ 이러는동안 그들盟員中에는 自己機關誌에 或은 各新聞學藝欄 其他雜誌를 利用하여 그들의 論文과作品을 發表함으로써 無產階級藝術을 鼓吹햇스나 一九三三年朴英熙의脫會를 前後하여 그들의活動은多少微弱하엿다 그리되자 一九三四年二月 陣容을 整頓하고 再出發을 꾀햇섯스나 그러나 벌서 그때는 客觀的情勢의 不利와 盟員의脫會等으로 沈衰狀態에잇든中 今六月 갑프演劇部라할수잇는 新建設事件으로 盟員의大部分이 不自由의 몸이되자 一九三四年後半期의 푸로藝術運動은 그야말로 完全히沈滯되어잇섯다。

어떠튼 十年의 歷史를 가진 갑프가오늘 解散된것은 마치 社會情勢의 變遷을 如實히 말하는것이안일까? 생각된다

東歐不可侵條約 交涉繼續通告

라外相駐佛獨大使에

【巴里五日發聯合】去三日라발外相은 駐佛獨逸大使 헷쉬氏에게 通牒을發送하야 佛國政府는 獨逸政府와 東歐不可侵條約에 對하야 交涉을繼續할 意思가 잇다는旨를 通告하엿다

英獨會談成否는 獨艦種別決定如何

第二日會談討議內容

【倫敦五日發聯合】英獨會談第二日의 討議內容은 昨日과同樣으로公式으로 何等發表치안코나 英國側의 態度에對하야 消息通은左와如히 觀測하고잇다

一、獨逸에 對英三割五分의 海軍力을 承認할는지은 그艦種別을 如何히決定하는가에달려잇다 即獨逸이 萬若三割五分의總噸數를 新艦建造의 大部分에適用하면 獨逸은 英國近海에잇서絶對 優勢를 示하게되는바이는英國側도 受諾할수업는 바이다

一、但발틱 制海를目標로하고主로 小型艦隊의 建造에 當케하면 英國에 脅威를及하지안호나 이런境遇에는 獨逸의主張을承認할 것

一、그리고 英國은獨逸이 將來植民地奪回又는 新植民地를獲得할境遇를 考慮하야建艦하는가안하는가를 明確하기를바란다 萬若獨逸이 如斯한意向이잇다고하면 通商路를防衛키爲하야相當한巡洋艦을必要로할것임으로 英國은獨逸이 어느立場을取할는지 明瞭히할必要가잇다

第三次會議中止 발서暗礁에直面

【倫敦五日發聯合】英獨兩國代表는五日午後는 會談치안코 六日午前第三次會談을 逢하기로되엿는데 會談第一日에 英獨兩國政府의主張에 자못距離이잇다는것이明瞭하게되여 벌서부터 暗礁에逢着한것이라고보인다 獨逸代表리벤트로프氏는 히틀러總統의方針에基하야會談劈頭 北海制覇를目標로海軍建造五個年計畫을整備하고 左의要求를提出하엿다고 諒聞한다

一、獨逸政府는 英國海軍力三割五分總噸數四十萬噸을 要求하고 右艦種別內容은三萬噸級戰鬪艦五隻 巡洋艦十六隻驅逐艦五十隻을새로建造함

一、建造期間은 五個年에亘하고 …

以上의 獨逸代表의提案을 接하고 英國代表는 果然難色을表示하야 爲先建造期間을延長할수잇는대로 延長하기를 主張하야 過大要求의 緩和에努力하는模樣이다 英國政府는 今回의會談은來年의 國際海軍軍縮會議에로의 基礎工作이라고 看做하고 따라獨逸代表에對하여도 日英兩國代表豫備會談의經過를說明하고 比較的妥協이 成立될可望이잇는 質的制限을들어 …

戰鬪艦 排水量 備砲口徑
巡洋艦 二萬五〇〇〇噸以下 十二吋以下
 一萬(?)〇〇〇噸以下 六吋以下

海軍力의 保有量에對하야도 英獨兩國이 會議에 臨할것을希望한다고 難色을 表示 하는것이라고傳한다

英國政府의 新提案에對하야 獨逸代表리벤트로프氏는即時伯林政府에通告하야 히틀러總統의請訓을仰한바 回訓到着을 기다려 맥도날드首相의 指示로直到되여 六日午前第三次會談은七日二日中止하고新內閣의成立後十一日頃에는再開할터이다

何應欽氏의辭職勸告 于學忠氏拒絶

責任지고引退할理由업다고 蔣氏態度如何極注目

【電通北平五日發】何應欽氏의招電으로 于學忠氏는 五日午前十時保定을出發하야 午後二時北平着 居仁堂에서 何應欽氏와會見하고 何氏는 四圍의情勢上 河北省政府主席을辭職하고 他의要職에轉任하라는 勸說에努力하엿는데 于氏는 余는 從來모도中央의命令에依하야行動하엿다 假令責任을못는다고하면閣下는勿論 其他에도重大責任을負할이가잇다 余一人의引退理由는업다 特히余의辭職은 東北軍全般에大影響이잇슴으로獨斷으로去就를決할수업다 고하야勸告를拒絶하엿슴으로 何氏는이것을中央에報告하엿다 蔣氏는果然 高壓的으로于氏를罷免할수잇슬는지업슬는지 對日誠意를如何히表現할는지 注目되다

(寫眞은于學忠氏)

蔣氏漢口에서 于氏와重要協議

【電通漢口五日發】中國側情報에依하면 北中問題解決의關鍵을잡고잇는蔣介石氏는 四川省成都에서善後策을協議中이든바 事態의急迫은 遷延策의效果가업는것을 認識하고 豫定을빨리하야 六日夜漢口로歸還할터인데 同日保定으로부터 來漢할 今回事件의責任者인于學忠氏와함께 武昌行營에서 時局收拾에關한 重要協議를 遂하기로되엿다한다 이重要協議結果 北中의 事態를如何히할는지는 今後의日中關係轉換의 樞軸이되는것이라하야 注目되여 잇다

辭令

遞信辭令 (五日附)

釜山郵便局郵便課長 命光州郵便局臨時在勤 遠藤狂逸
平壤郵便局郵便課長 書記 佐佐木直司
命釜山郵便局郵便課長
沙里院郵便局長 書記 前田豊吉
命平壤郵便局郵便課長
公州郵便局長
命沙里院郵便局長 書記 小畑卯一郞
平壤郵便局在勤 書記 鈴木吉三郞
命公州郵便局長

人事·集會

▲宇垣總督 十日間에亘한南朝鮮地方巡視를마치고 六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 노조미號로歸京

▲高橋通夫氏(江原道產業課長)新任人事次來社

八面鋒

◇朝鮮米의生產費、政友會는十六圓七十三錢으로、總督府는二十七圓三十錢으로。

◇兩者의調査에 十圓以上의差가 생겻다함은 結局 어느一方든지 잘못된것은確實。

◇이를둘라서 日米內地米가二十七圓九十五錢이니 朝鮮米로는 過高라고 農林省이不肯。

◇朝鮮米의生產費는 依例히低廉하리라는先入主見이 病根인은 勿論이나 政友의計算과가치過少評價는 더욱危險。

◇그보다도 將來自治管理時에低價買上을目的하고 生產費를作爲的으로 低下計算할魂膽이라하면 斷不容許할일。

◇天에 豊凶이잇고 人에利損이 잇다。벼(稻)가말업스니 金(價)을뉘알니오。

◇오족 至公無私한「하늘」이잇다하면 區區한人間事를 對히 웃을뿐하다。

金銀 福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セ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여러분아십니가! 萬人共知의 南滿洲觀相師 美南月
京城府…信洞 … 南月觀相所

巡査看守(講義錄) …

風病 은第三個月만服用하야도 … 强壯チモール丸 …
釜山府草梁町回春藥院內 癩病根絶의研究所

中央高普生十一名 今日、二回公判開廷

法廷은早朝부터滿員

學校關係者와家族들이多數이와서

지난이월이십일밤 서내계동(桂洞)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普)사년급생、올두반의생도 일백이명이 그들의동급생 정모(鄭某)、김모(金某)의량명이 교원을야유악매한사실로 학교당국에서 퇴학처분을한것이 동기가되어 교실안에서 농성하고 학교당국에반항하다가 밀경폭행을이르키어 교육계에일대물상사를비저내인 사건의일부관계자열한명의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건조물파괴등에관한 제일회공판은 예정과가려 확업오전아홉시 경성지방법원제사호법정에서 산하(山下)판사담임 촌전(村田)검사의립회아래 개정되엇다 당일 방청석에는 제자들이든 피고들의앙입을녀려하여 중앙고보의현상윤(玄相允)교장과 백봉제(白鳳濟)교무주임이출석하엿고 때마침재신양성소(遞信養成所)생도 사십여명이방청을와기때문에 일직부터만원이되어 피고의가족들도 입정을못하엿고 그중에도 멀리전남해남(海南)으로부터올라온 리해풍(李海豊)의모친은 변호인의교섭으로 겨우입정해출따름이요 때수의가족이나 방청인은 법정밧게서배회하고잇섯다

出廷한被告들

忠南保寧郡大川面 田民琇(二〇)
全南海南郡三山面 李海豊(二〇)
慶南大邱府壽町 朴尙鎭(二〇)
黃海道信川郡元興面 姜鳳三(二〇)
全南潭陽邑內 韓琛毅(二〇)
全北全州邑內 鄭錫龍(二〇)
全南長城郡北上面 金炳淳(二〇)
京畿道江華郡府內面 黃源泰(二〇)
全北高敞郡星內面 黃榮九(二〇)
全南順天郡松皮面 林斗澤(二〇)
黃海道安岳郡安岳面 元容德(二〇)

教室을閉鎖하고 夜半騷動한事件內容

사건내용은 지난이월십팔일 중앙고보교정에서 동교의 박모(朴某)리모(李某)량교원이 사진을백히고잇섯는데 사년급 강반교실에서 정모(鄭某)김모(金某)와또등 오륙명이 전기 두선생의흉을보며 악매를 한사실이잇섯다 사실이 동교 교원회에서 문제가되어 학교당국에서는 일후를경계하기위하야 동이십일 정、김량명의 퇴학처분을 하엿다 이사실을안 동갑반생도들은 그것이 가혹하고 부당한 처벌이요 그러것을 묵인하고 잇스면 일후자기네에게도 그러한 억울한 처치가미칠것이니 지금단연학교당국과 대항하여 두사람을복교시키자는 결의를하고 그운동을 일층강화시키기위하야 동사년급을반까지 합류되어 전부 일백이명의 생도가 교실에무허 대책을강구하엿다。그때마침동교 교원이와서 해산을명령하자 생도들은 폭언과욕설로 그선생을쫏차보낸후 출입을 차단하기위하야 책상과걸상으로 문을막고다시 협의한결과퇴학당한두명의복교를요구하는진정서외에 만일그것을드려주지아니하면단연퇴학을하겟다는 퇴학원서를작성하야일백이명의련서로서 교장선생에게제출하엿다 일바진정서를바든학교당국에서는 좌우간고려할터이니 해산을하라고하되 생도들은 듯지아니하고 더욱교실내부에서 문에못질을하며 책상들을파괴함으로 할수업시폭행으로 인정하여이미이십여명이달려와서 경게하는경관이 문을부시고교실안으로드러갓다 그러자생도들은책상부서트린몽동이、타기、남로、부삽등을던지며 대항하여교원과경관의두사람이부상까지되엇고그현장에서 거의전부가검거되엇든것이다。

審理에나타난 事件의核心

裁判長과의一問一答

그리하야 동아홉시이십분 개정 이되가 적시에하야 피고들의 주소、성명、년령、전과의유무를 무른후 림회검사로부터 기소리유의설명을바더 피고황원태로부터 심리를개시하여 사건에관하

황 감금그러한일이잇서서도나는 반제주의와공산주의자도아니요

재 군사교련은왜반대햇느냐?

황 전쟁이이러나면우리가제일선에나서서 전사(戰死)할터이니까그럿소

이처럼 피고와 사상에관하야문답이잇슨후 사실심리가운데

재 온건하게 처치할수잇는것인데 하생의 선분으로 왜그다지폭행을햇나? 그진정서와선언서를밧고 교장선생이 고려한다고햇는데도 너히들은 여저히 교실에 롱성해가지고필경폭행까지 한것이아니냐?

황 그것은 교장선생이 진심으로 우리의요구를 드려주려는것이아니라 일시방편으로그런것인때문이요

재 그러면 아직도너는 잘못이라고녀이지아니하는가?

황 잘못도잇고 잘못아닌것도잇소 교장선생이 우리더러고려할터이니도라가라고한그때에이미 경찰서에말하여 경관을불러두엇소 그런때문에 우리는분이되엇소 우리와학교사이에원만히 해결할수잇는것을 미리경찰서에말한것은 학교당국의큰잘못이요 그러나 거기대해서 우리가흥분이되어가지고 냉정을잃은것은 잘못으로아오

재 사태가그래케되면 너히의동무들의퇴학을 취소는커녕 너히가퇴학될염려는업든가?

황 초지를관철치못하면 내자신이 자진해서 퇴학하려햇소

재 그런이엇슬가?

황 학교대생도의일이니까 경찰서에까지 잡혀가도록 학교에서 일을저질러노흘필요는 업섯소 하니까책임은 위선무구보다도 학교에잇다는것을 끗까지주장하오

이와가치답변의태도와 어조가강경하엿다 이상으로황영구까지의 심리가끗나고 동열두시에일단휴정을한후 오후에다시속개하기로되엇다

◇中央高普生公判寫眞 (상)법정에들어가는광경 (하)는 법정밧게잇는 피고가족들

會寧牛의進出로 家畜去來大活動

市內牛肉價도減下한다

지난오월중에 경성부가축시장(家畜市場)의 거래상황은소(牛)가삼천이십오두(頭)입장(入場)한데서 이천삼백사십팔두가 삼십일만이팔천륙백십원에 팔리어 전년동기보다 입장은 륙백삼십오두가증가되고 매매는륙백십사두가증가되엇스며 매매가격은 구만륙천이백칠십이원이 늘엇고 말(馬)은 아홉마리입장에 네마리가 이백구십이원에 팔리엇고 도야지(豚)는 륙백륙십구두입고 에사백구십오두가 일만일천사백이원에 팔리여전년동긔보다 입장은 오백팔십두가늘엇고 매매는 사백륙십오원이늘엇는데 소가이가리 늘기는만주국의 설립이래만주우의수입이 막히고일본내지에서 조선우의 육용(肉用)이 증가하야이출(移出)이만흔관계로 작년이래로조선내의 소는 공급이부족하야우유가의 앙등과 수용의공황을입이켯섯는데 최근에 이르러 회녕우(會寧牛)가 다수히 반입(搬入)된까닭에 그와가튼 흉성한매매를보엿는데 이로말미암아 소매매우육가의 앙회를압호로보일듯하다고한다

險難한就職戰線에 女性群의進出顯著

昨年中各地就職、求職의四割 勞働者는九割餘就職

일반취직군이고 일용로동자를물론하고 취직난으로헐덕이고잇는근년에잇서서 이를소개알선하는기관으로미미하나마 전조선주요도시에잇는 열두개직업소개소의작년도에 소개성적을보면 일반직업소개취급건수는다음과갓다

求人數	三三、五〇五人
求職者數	四七、七五四人
就職者數	一九、三四一人
求人者에對한求職者數의比例	一四二%
求職者數에對한就職者數의比例	四一%

전기수자를보면 구인수는삼만삼천오백오인인데 구직자수사만칠천칠백오십사인중에 취직된자가 일만구천삼백사십일인밧게 되지안는다 이외가치구직자가업마든지남어잇스되 구인수대로도충당식혀주지못하는것은 시긔와지역적으로 편균되지못한것을보이는것으로취직자의 비례를보면구직자의 사십일퍼ㅡ센트로 어느정도까지 사업계활기를보이는지음에잇서서는 취직자가구직자의반할이도되는것은 주목할현상이다 다시이것을남녀별로보면 남자구인수일만사천오십인으로 구직남자이만칠천사백사십일인중에 딸전이백십인이취직되여 구직자의삼십이퍼ㅡ센트가취직이되엿고 녀자는구인수가 일만구천사백오십오인인데 구직자는이만삼백십삼인중에서 일만일천일백삼십일인이취직되여 구직자의오십오퍼ㅡ센트가취직이되엿스니 녀자가남자보담 취직률이훨신나진것은 직업소개소의리용자가일반적으로 남자층이만흔리유도잇거니와대체로간단한취직으로는녀자의수용이느리기가미 또한편으로는남자들이구석에만잇든 녀자들도직업전선에나가지안홀수업시 되엿다는일반적경향을말하고잇다

전기 일반취직자의 소개이외에 전조선열두곳 직업소개소에서취급한 일용로동자의 소개상황을보면다음과갓다

求人數	一七七、六六八人
求職者數	一八〇、四九三人
就職者數	一七七、五八三人
求人數에對한求職者數의比例	一〇二%
求職者數에對한就職者數의比例	九八%

이와가티 일용로동자에 잇서서는일반적으로 서로이 량호하야 구십팔퍼ㅡ센트의 취직을보게된것은최근사업계의 다소활황을말하고잇다

全朝鮮中等庭球에 斯界强豪總出場

徽文、中東、養正等九校가申請 八、九兩日佛專코ㅡ트서開催

中央佛敎專門學校學生會 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의 第一回全朝鮮中等校團體庭球大會는來八日과九日의兩日間 市內崇一洞佛專코ㅡ트에서擧行할터인바 昨五日까지에申請한學校는 斯界의强軍養正高普、徽文高普、中央高普、第二高普、中東學校、培材高普、協成實業、普成高普、商工學院(外三校未定)等九校에 達하야 記念할第一回大會를 더욱빗나게하고잇다 아울러 對陣은 明日正午에 主催側에서嚴正한抽籤依에하야決定하기로되엿다、今씨ㅡ슨에드러 徽文、養正、中東等은 實로伯仲之勢를 보이고잇서 자못當日의 白熱戰을 豫想케한다

第二回全朝鮮 男女卓球 十五、六兩日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二回全朝鮮男女卓球選手權大會는 來十五日午後一時(女子部)、十六日午前九時(男子部)에 京城帝大體育講堂에서 行할터이라는데 參加希望者는 今年度同協會加入者에限하며、六月十二日까지 京城齒專內同協會로申請하기를바란다고 한다

野球短評 延專…高商

◇……今日延專野球部가 朝鮮人側野球界에서 唯一한 存在인만큼 朝鮮人側「판」의 期待가 絶對的인 延專과 京醫專이긴高商과의決勝戰은 延專으로서 必勝을 期하지아니하면 아니될重大한戰이므로서 開戰前부터 延專의責任은 너무나 過重한 感氣에 차인듯이 보엿다 戰前에 選手團에게 激勵를 주는것은別問題이지만 過重한 責任을지어精神的苦痛을 주게된것가튼감 갈點이아닐까!

◇……六回初까지의 延專守備成績을보면 投手가 敵에게 安打三個를 許하얏슴에 不拘하고 失策이八個다 그中에는 內野守備의中軸인 三壘手와 遊擊手의凡失이 合五個로서 敵의得點에拍車를달고 自軍을 窮境에 陷하게하얏슴은 守備에잇서 全軍의不足을 엿볼수잇다

또『힛·엔드·런』이나『스키ㅡ스플레이』를 防禦치못하고 敵에게 乖하얏슴도 平常의 細心한 練習이 업섯슴을 말하야주엇다

◇……守備보담은 攻擊의힘이라고 許이잇는 延專軍의 打擊法이 敵投手의 投法 球質을最後까지 看破하지못하고 無理한長打를 強行하야 六回와가티一死滿壘란 絶好의『차ㅡ니스』가잇슴에도 不拘하고 無得에終하얏슴은 今日勝負에잇서 重大한結果를 주고마럿다 高商은 攻守에잇서 技術은 延專과 伯仲하엿스나 全軍이 沈着하야 잘맛첫고 침첫차서 大過업는 試合을 運行하야 今日의 勝神을 마지하얏다

全南榮山浦選手入京

明七日로 迫頭한 第二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에出戰코저 멀리 全南榮山浦에잇는榮江拳鬪俱樂部所屬選手朱南圭君은綿手羅秉燦君과함께昨五日밤入京하야 太平通一丁目奉三旅館에投宿하엿다

京日庭球中央豫選

京日主催의 第十二回 全朝鮮軟式庭球選手權大會 中央豫選은來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龍山鐵道局코ㅡ트에서 行할터이라한다

培材五十週年 記念大運動會

市內培材高普에서는 六月十日午前九時부터 同校庭에서 培材創立五十週年記念運動會를 盛大히 開催하게되엿다

仁商對善隣野球

仁川商業對善隣商業의 對抗野球試合은 來八日(土曜)午後三時부터龍山球場에서行할터이라한다

冬올림픽에 廿一國參加

第十一回世界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本部에 五月中旬까지에 申請한冬季올림픽大會 參加國은二十一個國이다 스키ㅡ二十個國、뽑프스레ㅡ十四個國、스피ㅡ드·스케ㅡ트十六個國、아이스하키十六個國、뛰ㅡ귀어·스케ㅡ트十五個國 그리고 五競技에全部出場하는나라는 米國、墺太利、加奈陀、체코·슬로바키아、佛蘭西、獨逸、英國、和蘭、伊大利、諾威、波蘭、瑞西의十二個國이다

運動界人事

◀權熙昌氏(朝鮮蹴球協會理事)는 東京서열린 日本蹴球協會代議員會에出席하엿든바 六日午後三時二十分 노조미로歸京

第二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

兼比律賓代表軍對抗選手選拔戰

明七、八兩日午後四時半

慶雲洞東一銀行庭球場

主催 朝鮮體育會 全朝鮮아마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會員券 普通50錢 學生30

不便한屎尿汲取制 實施初부터不平

手續上의煩雜하기짝이업고 無用의負擔이라고

중소하수구(中小下水溝)의정비와 도로포장의 시설등에대한 재원을엇는다는군색한리유로 시작한 경성부의 시뇨급취료제도(屎尿汲取制度)는 예정대로지난일일부터 시행중인데 이는일개월닙석록두(一石六斗)즉여덟동을기준하여 가는것까지는 호별세(戶別稅)오십사등이상과법인(法人)은매월이십전을밧고 오십오등이하로 륙십등까지는 십오전 륙십일등이하는십전식밧고 그외에 초과되는 부분은 한동(約一斗)에 오전식을밧되 월말에 경성부 위생과에서『카ㅡ드』와대조하야 가지고계산하야 통지한다음달십일까지에납부치아니하면 세금과마찬가지로 동산(動産)을 차압하며 일정량은부에서 리원이표를가지고 각호에나아가서 혐금으로쌀고 급취감동은 급취한다음에 그표를도바다가지게되엿다 이것을실시함에 압서경성부위생과에서는 시내팔만여호주민에 게접진마다선전『삐라』를해서 돌리고 경성은신정년도시로 륙대도시의 어느곳보다도 발생률과 사망률이함께만흔데 그원인은하수구의정비와 시뇨 우물의처리방법이 완전치못한것이니까 그재원을엇기위한것이라고 루루히 서술하얏는데 실상이것을실시하고 그동안 닷새의 경험을보면 시민들은 시뇨통처가는데 인부가 집을가법게하느라고 적량이하를 처가서 량이늘지안는가의 심하야 그악취를마다가면서도직혀섯는사람이 만허서도리혀 극히비위생적 현상을 보인다

京城府會는 來十二三日頃

제이회부회의원선거후의 첫부회는오는십이삼일경에개최하고 부장이하각임원의선거를 행한다고 한다 또오는칠일에의원유지는부읍홍접실에서 간친회를열고임원선거에대한 협의를하리라한다

無電技師下船한채로 朝郵兩船出帆

大阪서北、西朝鮮에가는 金剛山丸과長白山丸

【同通大阪電話】 대판항에정박중인 조선우선신의주(新義州)항로금강산환(金剛山丸)(一一五〇톤)무전기사목촌익우위문(木村益右衛門)과북조선항로장백산환(長白山丸)(二五〇〇톤)무전기사 중도금차(中島金次)등 량씨는대판항에입항하는동시에 상륙하야출범일인오일정오가되여도 돌아오지안하야 두배는 모다출범하지못하고 정선하고잇다 이것은이회사소속선박 무전기사 십륙명이결속하야 경성본사에 대하야 대우개선을 요구하엿스나 거절을당하고 무전으로련락하야 각항에서 정선한것이다

【同通大阪電話】무전기사의하선으로 대판에서 오도가도못하는 조선우선금강산환과 장백산환은 본사의 명령에의하야 무전기사의 하선한채로 오일오후다섯시경 무전실을 폐쇄하고 모다출범하엿다

乳菓滋養の親玉 松の實キャラ

全東公普開校式

【全東】충남연기군전동공립보통학교(全東公立普通學校)에서는지난오월삼십일에 전동역진흥장리(農産里)공교극지에서 관민다수참집하에 성대한개교식을거행하고 림시교실을비려 수업중인바 교실신축은 곳착수하리라한다

담배專門窃盜

담배만흠처다파려먹은 절도ㅡ부외 아현리(阿峴里)산(山)일번지 김원근(金元根)(二九)은 지난일일오후 부내 관철동(貫鐵洞)일백십륙번지 김창봉(金昌奉)의 담배가가에서 해태연갑을훔처다가 파려먹은것이 탄로되야 방금본정서에서 엄중한취조를받는중인데 그는 사월십팔일에도 전긔가튼가가에서피존한동을 훔처다파려먹은것을 자백하엿다한다

三人黨의窃盜 被害額數千圓

시내 랭동(冷洞)칠십사번지 전과이범김복동(金福童)(二七)은 오년전에 경성부내를횡행하며절도를거듭하고는 만주(滿洲)로도주하엿섯는데 지난사월경에 경성에돌아와서 시내평동(平洞)팔번지 박영춘(朴永春)(二二) 랭동(冷洞)팔십삼번지 박장봉(朴章鳳)(二二)과 랭동칠십사번지를 그근거로하야 절도단을조직하야가지고 지난달이십오일에 시내루상동(樓上洞)리천(李川)의집이빈틈을타서 침입하야 귀금속수백원어치를절취한외에 시내각처의빈집과창고등을전문으로백여건의범죄를 감행하야 그피해액이수천원에달한다는것이판명되여시내종로서(鍾路署)에서는 도지문게(道指紋係)와 협력하야극력수사중 오일밤청진동(淸進洞)에배회하는것을체포하엿다

延坪島遭難漁船 龍湖島에避難

황해도경찰부장(黃海道警察部長)으로부터 경무국에온보고에의하면 지난삼일황해도연평(延坪)압뜨다에서 조난어선은 오일에이르러 동서안에서한척이 전복된것을 발견하얏고 기타어선은 룡호도(龍湖島)에 피난중이며상일에 부포항(釜浦港)에 피난한어선이십척이 연평조난선임을알리여 오일아츰에 경비선작환(鵲丸)이현장에 급행하얏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低氣壓은 小笠原島附近으로부터日本에 進하고北滿은氣壓이야르며 關東州에도 低氣壓이잇서 東進中이다 北部는雨 其他는 晴曇不定이다 明日은 日氣가조라

各地天氣實況

昨日最高 二十三度五 最低 十二度四 今日正午 二十度

中江鎭	雨	大邱	晴
新義州	雨	釜山	曇
平壤	曇	下關	曇
仁川	曇	大阪	曇
京城	雨	東京	曇
全州	晴	天津	曇
木浦	晴	新京	曇
濟州島	曇	奉天	曇
雄基	雨	營口	曇
城津	曇	大連	晴
元山	晴	靑島	晴
江[illegible]	晴		

博覽會와大景品提供

會期는十日까지絶對延期치안음

本社에서는目下景福宮內後苑에朝鮮産業大博覽會를開催中이온바 京城府民諸位에對한大奉仕를行하기爲하야 六月六日(雨天이면順延)에大景品을進呈합니다景品의本數는一萬本으로서一本도空籤은업습니다。

六日 幸運데ㅡ
七日 土産데ㅡ
八日 九日 有料入場人員豫想投票懸賞데ㅡ
十日 最終日여러가지餘興이잇스니來觀歡迎

景品의 目錄은左記와갓습니다여러분 某조록觀覽하여주시압기바라나이다

幸運의景品

一等	白米四斗入壹俵式	五本
二等	美術坐時計	十本
三等	醬油一斗樽	二十本
四等	特製샤쓰一着	三十本
五等	三越石鹼一打	五十本
六等	特製下駄一足	五十本
七等	人絹二碼	二百本
八等	便箋	千本
九等	캬라메루	八千六百卅五本

懸賞品 (八日、九日은左記의豫想投票를行합니다 懸賞付有料入場者)

一等	金時計	一個一人
二等	十圓債券	一枚二人
三等	五圓債券	一枚三人
四等	담요	一枚三人
五等	옷감	一反三人
六等	浴衣地	一反三人
七等	同	同三人
八等	同	同三人
九等	螺鈿細工箸箱	一個十人
十等	三越石鹼一打	二十人

主催 朝鮮新聞社

朝鮮産業博覽會

幸運은누게로?

羽衣

市內는電話잇는대로直時配達합니다、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數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 學生男女用紳士用各種レンコート

博覽會場內賣店特設

京城光熙門外新堂里

朝鮮防水布製造所

(定價表進呈) 電話本局一〇一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適○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和生駒停留所前 博文社

腫氣 靑山膏에움 히벡고

新學期開始六月廿日

一、中等科第一部 (師範學校中等學校高等普通學校工業學校農業學校水産學校藥學校等中等學校의入學受驗者를爲하야準備教授함—內鮮人共)

二、中等科第二部 (各中學校上級學年에編入受驗者를爲하야準備教授함)

三、普通文官科教員受驗檢定科 (官吏又는教員希望者를爲하야受驗準備教授함)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十三番地 (電本二一六〇番)

實踐簿記專修學院附屬 中等豫備專修講習院

生徒募集

山으로! 바다로!

行樂의 씨ㅡ슨은 도라왓습니다

들고갑시다! 携帶便利한 蓄音器를

포리도ㅡ루

新發賣

斷然、品質優秀·音色明快 (意匠斬新한點)

絶對他品의追隨못할廉價

新手提型 三十號

定價 三十圓

民謠

只今大流行하는流行歌는

朝鮮의달 鮮于一扇

レコード番號(一九、一九五)

山口樂器店鐘路支店

京城鐘路二丁目永保빌딩 電話光化門四八四番 振替京城二二七六六番

交換台

일곱시간로동에 노는날도안주오

아모리 정사라하드래도보건위생을위주하는 조선한약계에서는 정원들을 하로 십육시간식이나로동케하면서 한달에 한번도 휴일을 주지안이하야 그야말로보건상 비참한상태에 빠저잇는중 다행히 조선한약조합에서 매월회식이나마 일요일을 리용하여 공휴일을 적히도록하게되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이 통하각고주속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함에도 불구하고여 전히 한달의 한번공휴일을 직혀주지안이하니 이것도 사람을부리는 사람들의 할일인가요? 삐가회이 고롭이지처오레 일하겟갓지도안흔데그나마그것이직업이니 나갈수도업서 커-다란 고통중에잇습니다 우리의로동은 아츰여섯시부터 밤열한시까지 조금도 수일새업스니 몬지속에 일하는우리들은 참아견듸기가어렵습니다 어떠케 그주인들의 외사를한번들어보아 그들의 심사나알고십습니다(市內某藥房一店員)

매주첫요일이 휴일로되여잇소

우리조합은 한약업자들의한의로써 동인제로 조직되엿는데창립의때에 너무도 가약방에서로동하는 정원들이 쉬는날이업스므로 능률상 또는 보건상커-다란 영향이 잇슬것이라하여 작년부터 매주첫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상점형편상 한께번에 모-두 수일수업스므로 첫일요일이 공휴일이지만 한달에 그어느일요일에나 서로 교대하야 수이도록하게 되니다. 이것은 상점사정상 부득이 한일이나 그러나 이것조차 이행하지안허 한달에한번도 정원을 수이게하지안는 약방이 만허한일입니다. 동인조합이기때문에 어떠케 지령을 내려 그것을 실시하지안이하면 어떠케제지를 가할도리도업서 매우곤란합니다 그들리지안는 약방의주인의 말을들으면 노는날이잇스면 그노는날은 못된곳으로 놀러단이다하여 공휴일을 직히지 안는다고합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케도리가 업습니다 여하간금후는 되도록 묵철을하여 이규정만이라도 꼭직히도록 하고저합니다 (朝鮮漢藥組合書記申泰永氏談)

삼복더위도이처지는 아츰이슬의나발꼿

류월중순까지에파종을하면 한녀름은곳시절된다

여름이되여오면 만물이다 원기가 업서지고 산만해집니다. 호무르는 록음도 시드러보이는 삼복더위에 아침이슬을 흠북담고 피여나는 나팔꼿(朝顔花)이얼마만드려도 청초하거니와 실로 아침나절과 저녁그늘에바라보든 조안화는 실로 삼복더위에 시달닌 우리의신신을 위안해주는것입니다.

륙월중순까지가

그파종기로서 제일적당한데 이것은 엇더케하는것이 조홀까를말슴해드리겟습니다. 먼저 밀감상자가튼데다가 흙을담는데 맨밋헤는 좀 굵은흙을놋코 그우에는 좀보드라운흙을 깔려서우이 평평하도록하고 또한 나무상자는 밋헤구멍을 뚤려서 물이새이도록 해야합니다. 그뒤에는 연필가튼 나무꼬쟁이로 간격이한치 길이가세푼쯤 되도로 뚤고 씨를한낫식심으는데 뿌리나는부분을 밋흐로가도록합니다 그리고는 물뿌리는통(如露)으로

충분히물을주고

나서 신문지로덥흔뒤에 일광이잘쪼이는곳에 둡니다. 그러나 그뒤에도 흙의저진정도를보아서 물을잘주어야합니다. 만약물주는것이적당치못해서 넘우적게주면 말너버리고 그렇타고해서 넘우만이주면 씨가썩어버려서 싹이트지못하는것입니다.

이러케하면 일은것은 五六일, 느저도 一주간만걸니면 싹이듭니다. 싹이터서 두입파리가 완전이피엿난뒤가 이식(移植)하기에 제일적당한 때인데 이긔회를노치면 조혼결과를 엇지하는것이니 될수잇는대로는 五촌이나 六촌쯤되는그릇에 간은모래나

숫부스레기를깔고

그우에는 나무닙사귀나 집(藁)히썩은것을 四할, 모래알一할의 비례로섞근배양토(培養土)라는것을담은뒤에 그중에도 제일 발육이잘된놈을골나서뿌리가상하지안토록 뽑아가지고 옴겨심은뒤에 물을주고 그다음부터는 바람이잘통하고 일광이잘쪼이는데에 두는것이조흡니다.

이러케옴겨심은뒤에는 전말입 서귀가 四五매납니다 그때에는 유박(油粕)한되에 물한말을 부어서 한두달썩은뒤에다시

물을섭오배가량

으로부은것을 한두번줍니다。 그러케하면 다시 입사귀가 열두어닙파리가나는데 그때에는천명한납을골라서 네납사귀쯤남겨노코 전부따버립니다。 그뒤에 二三일만에한번식 이비료를주면 유이 왕성해지고 그납사귀밋헤 새싹이 돕니다。 그밋헤깐중한두개만 남겨두고 다른것은 따버리면 그두개의 가지속에서 꼿봉아리가 생겨 나오는데 그꼿봉아리를 두세개남겨두고 옷순을베허버리면 꼿송이가 보기조케큰것이피여 나옴니다。 이것이 맨처음에 피는꼿인데

이꼿치서드러질

때가 되거든 새싹을 다시양성해서 비료주는것과 납사귀따는것을 우에서 말한바와갓치거듭하면 한여름동안 두번꼿 세번꼿을 거리거리관상할수잇는것입니다。 꼿호로 주의할것은 꼿치피기전 四五일에는 비료를주지안는것이조코 납사귀만저 三일후에는 물은녀우만이주면꼿봉아리가붓지안습니다。

곰팽이안피게하는법

(이런것도아라둘일)

장마때가되면 무엇에든지 곰팽이 피는데 그방지법으로서 다음몃가지를말슴해 드리겟습니다。

一、무엇이든지 간조한장소에둘것 음식물은 물통이잘되는곳을선택할일。

一、의복이나 가방갓흔것은 때려워것스면 곰팽이나기쉬운때문에 때려워진것을 정하게씻서서 잘간조식힌뒤에둘일 그리고때때로일광에쪼일일

一、냉장고속과갓흔오도이면 곰팽이 그다지잘피지는안치마는 한곳에오래두면 차차피고 세균도생김니다。

一、공긔가 동요하지안는곳도 곰팽이피기쉬운것입니다 이것은공긔의류동이강하면 수분이정체때지안코 발산해버림으로 표면이저저잇지안는 문입되니다。

맛잇고 담스런 中國料理 멧가지

鍋巴(귀바)

누룽지요리재료

누룽지。 버슷 다섯개 간장。 닭국물。 도야지기름。

조리법

누룽지를발물이붓지안토록굴거서 한치식써려서 버려노코말닙니다。 그리고 남비에기름을붓고 펄펄끄려들뜨여내어것을닭국물에 버슷너어서끄린국에 누룽지를당거서먹는것입니다。 이요리는 삼등입으로 연회석락갓흔데도오르는것입니다。

쏘다지는『美』 목에미가잇다

보통사람은 그다지 문제삼지안는목아지의미라는것이 조각가에게는 배선미나 각선미보다도철신덩 관심의 대상이되여잇는데최근 국제적으로 유명한미국의조각가『프레데릭·슈웨이거-트』씨가 자긔도모르게『이것이다!』하고 경탄한것은 사진과가치 씬세아·리켓쓰양의『목아지의미』라고 합니다。이것을『모델』로 해서 근대적여신상(女神像)을 조각한다니 한번볼만한것입니다

처녀가『총각되기까지』

얼마전까지 중국천진(天津)에서 이야기꺼리가되든 사실이잇습니다 양청평(楊清平)이라는 금번스무살된 사람은 정말오랜 녀자이엇는데 자기 몸에생리적 변화가생겨 훌륭한 남자으로 변하엿다는것입니다 여러의사들이 사실을증명하니까 우리로서는 무어라고트집잡을수도업지요 사진오른쪽은 녀자이던 양군、왼쪽은 남자가된 양군이올시다

보기숭한대머리

유전이아니면 고칠수잇다 脫帽는조흐나뇌에납버

사람의 몸이란 자극이만흘수록 반응(反應)이 만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머리털을 잘깟고 단장하는 사람은 머리털이 잘빠지지 안습니다 그런반면 머리를 불결하게 해두는분은 머리가 덜어워저 비듬과 성기게되는데따라 혈의영양이나빠지므로털이 잘빠지게됩니다 탈모가 만타는것과 대머리가된다는것은 그성질이 다른데절문이의 대머리의 본질은 대개『유전과 병으로 되는데 유전으로된 대머리는 고칠길이 업습니다

×

최근 탈모(脫帽)주의가 만히 유행되여 머리에 모자를 쓰지안코 단이는분이만흔데 이주의가 만히유행되게된원인은 자세히 알수는업서도 머리에모자를 쓰지안흐면 자연 머리털들께끗히 하지안흘수업게되고 또태양의 자외선(紫外線)을 쏘히게되여 외부로부터 밧는 자극에 의해서 탈모방지를 할수잇게되므로 머리털에는조혼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즉사하는것을 바드면 뇌(腦)에 나쁨으로 한여름에는 밀집모자나 맥고를쓰는것이조흡니다

×

아주대머리병 원형(圓形)대머리병이나 매독성대머리는 고칠수가 잇습니다 원형대머리는 대개 리발소에서전염되엿다고 생각들 하고잇섯는데 최근 연구에의하면 영양신경(榮養神經)의 일시적 저해에 의해서 일어나는증세라고합니다 또 젊은사람이 대머리되는것은 대개유전적인데 이방지법으로서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만히쏘히는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되지안습니다

家庭메모

보석반지。 진주때는이러케뺀다

보석반지나 조각한반지 등이 윤이 안나는데는『암모니아水』 몃방울 과밀가루(胡粉)를넣어 탄데다가 치주를 당거둠니다。 몃분 지낸다음에는 꺼내서 조히로 닥그면윤이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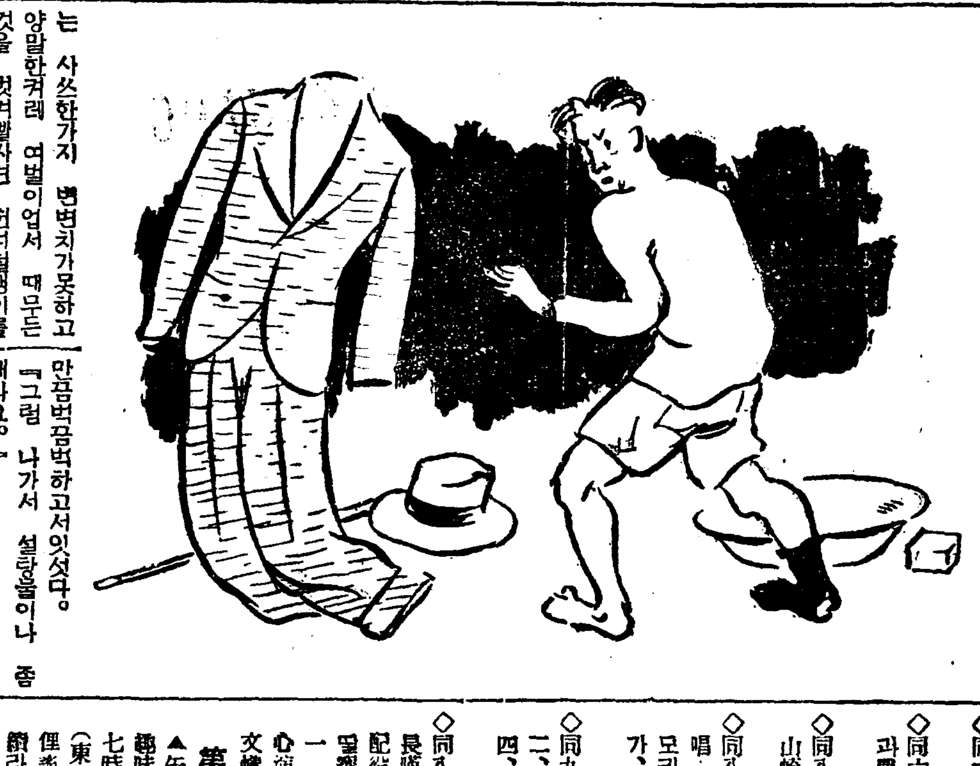
나간에분(白粉)이뭇든지 기름 때가무든면 광택이 아니남니다 이런때는자주 알콜이나 소금물이나먹는소다 품물에씻서서 다 씻슬때에는헌솟(毛筆)에 또팜요물로 으로문지른다음에 깨끗한 헌겁으로 닥슴니다

◇

그러나 이것은 진주(眞珠)가때 무더 주인 경우에 말슴입니다

─※─※─

曆 六月七日(金) 舊五月建壬午(大)初七日 甲寅·水·牛·成
●裁衣·納財·上樑·辰時·開市·納財·修橫에宜함
▲芒種 七日(舊五月初七日)
▲夏至 二十二日(舊五月廿二日)



유-모어小說 望夫石【四】

金熊超 作、畫

자장歌(四)

재호가 박그로 나간뒤 명례는 놋요강을 장미려 되미려노코 잠시동안 우두머니 안저잇섯다。 되지안흔 연극이나마 한참은 돌데로드려 화집을 한차치른고난것처럼 몸이 휘젓는것이다。

─남은것이 무엇이냐?

빠르트하든 선시절이 까라안진다음에는 모든것이 냉정하게 머리에 떠올랏다。─애초의마음가래서는 남편을 흠두게에마라 바람이질을해도 속이 쫄릴것갓지안헛다。 밤바다에 자빠러노코 떡방아찌틋이 뭉쳣다 잡아뜨덧다해도 속이 시원치안을 것가텃다。 그런것이 결국에는 머적지근한 넌센스극 일막으로 저부지되고 마럿다。

─작흥도 마음대로안되는구나─

명례는 이런생각이들면서 한쪽으로는 남편이가엽섯다。 명푼안되는 월급을 바라고 허덕지덕하는꼴 양복이니 구두니 월부맛에 곳죽어도 조흔것으로 맛차려 것만 번드레해지 속에는 사쓰한가지 변변치가못하고 양말한커레 여벌이업서 때무든것을 벗겨빨자면 헌더렬뱅이를 들끄내어 색보잇드시잇거나뚜러진 문구녁메우드시 때거나해서 우선입혀두고 그러치도못하면 일요일하로는『단벌옷』『크리-닝데이』로 정해놋는신세 술은 매일장취라도 어더만먹고갑지못하는형편 ─외상일 술어더먹을 궁리만하거나 추접스럽게 술자리를 늘업거리기전에야 누가 술을사줄꾸! 명례는 이런생각도드럿다。

─말이쉬어월급이지 자기한몸거두기도 어려우된……문익공부한답시고 동경류학하고와서당치도안흔 주판질을해서 밥는비러먹으니 환장안될수잇나!……무슨짓을하거나말거나 제발겨집질만마럿스면!

명례의너그러운생각도 결국에는 바늘구녁만콤 좁아지고마럿다。

얼마안지나서 재호가 헐레벌떡어리며 뛰어 드러왓다。

『돈햇서?』

제일궁금한것부터 무럿다。

『로햇서요』

『로한것 어덧서?』

재호는 선자리에서 한바퀴 돌면서 은방안을 두리번거렷다。

『로한것을 무엇하려두겟서요、갓다버렷지…』

명례는 꾸며대답하고 하기는

「그대로 두어두지 그래서 내가갓다버리게……」

─여보어라!

명례는 속으로 우섯다。

「인제편안햇서?」

다소 안심된눈치엿다。

「그건 어쨋든간에 사오려거엇 잿서요?」

「그러게말야……」

재호는 두말을찌버리고 고개를 외로꼬앗다。

「……가게문을 양만 흔들고두드리고해야 여려 주어야지。 별사정을 다하고、문을발스길로 차다시피해도 드듸계 안제하는 결여대케해。 한군데뿐이 아니라 면군데가 다그래……」

「별사정을 다햇다니 여편네가 독약먹엇다는말까지햇겟구료」

「아니 그런말은아니햇지만 급한 병이 낫다구는 그랫서……」

「어쨋든 망신할뻔햇소 순사가 순행돌다 드럿스면 나를순회병원으로 당어가지 그대로 두엇겟서요?」

명례는 반롱담으로한말이다。 그러나 재호는 얼이빠저서는 만큼벅굼벅하고서잇섯다。

「그럼 나가서 설렁탕이나 좀해와요。」

명례는 오늘처음으로 가만히 안자서 남편을붓려보앗다。재호는 아모말도안코 마루로나갓다。 부억으로뒷마루로 한참동안 왓다갓다하면서 달그럭어리다가 분부대로 거행해와다。

『타도푼수잇게타야지。 당신맛좀봐요』

명례는 대접을 재호압흐로 미럿다。 재호는 속으로

─왼흔짓일까?

하면서 한모음 명례는 대접을 바더서 입에대다가 금방떼면서 핀잔이다。

『이걸 날더러먹으라는게요?』

『약되라구 듬뿍탓는데 왜그래?』

『아차!』

꿀꺽삼켜 맛보앗다。 고개가절로숙어졋다。 소공을 탓든것이다。

『당신하는일이그러치별수잇소』

『유리항아리가 팍가래서그랫군 새로타오지 새로라와…』

재호는 다시 나가라햇다。

『그만두고 모과수사라든돈이나 이리내요。 래일와갑치루게』

『그럼 죽으라고먹으야갑까지의 상을 지우는구로』

잡아떼엇스면 먹고살래일아츰 밧찬끼리갓시엇다。

六日(木曜)

◇同午後時三○分 피아노獨奏 一、워-털루의戰…엔더-슨作曲 二、사랑의속삭임…키칠作曲 三、저녁鐘作品二○一番…팔하이쓰作曲 四、월쓰作品六十四의一…쇼팡作曲 五、자장가作品五十七…쇼팡作曲 李慶元
◇同六時五五分 農村講座 移秧과農家行事(一) 京農教諭 金雄珏
◇同八時 農村講話(總督府囑託 山崎延吉) 齊家의要道(四) 譯講 金玉鉉
◇同八時三○分 歌詞 一、白鷗詞 二、길軍樂 申花仙 李月色 大笒金永根
◇同九時 花草四百里其外 一、花草四百里 二、報念 三、六字배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高桂仙 高飛鳶
◇同九時三○分 古談 車青吾

七日(金曜)

◇午後○時五分 吹奏樂 一、海外行進曲 二、百橋 三、愛好曲拔萃 四、제비가집으로나려갈때 五、行進曲 行旅 救世軍育兒院 밴드
◇同二時 스포-츠講座 水泳에對하야(二) 指揮 W·E·노-벨 李鍾宰
◇同六時三○分 童話 금비둘기 毛麒允
◇同六時五五分 農村講座 移秧과農家行事 京農教諭 金雄珏
◇同八時 農村講話(總督府囑託 山崎延吉) 齊家의要道(五) 譯講 金玉鉉
◇同八時三○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나、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나、唱劇調 興夫歌 沈相健 韓成俊
◇同九時 寧邊歌外 一、寧邊歌 二、朴淵瀑布 三、漢江水打鈴 四、노래가락 申海中月 大笒 金明俊
◇同八時二○分 라듸오·드라마 長嘆曲 全二景 金昌基作 配役 夢雲處士…文秀一 그의留寶貝…李春汀 朴巨鄰…文東一 宋鳴河…宋夕映 解說李無心 演劇市場 指揮文秀一 効果 文鍾鋒

第一放送
▲午後○時○五分物語▲同二時趣味講座▲同六時(東)唱歌▲同七時三○分(東)講演 ▲同八時(東)浪曲▲同八時三○分(札)俚謠 ▲同八時五○分(大) 連續라듸오·드라마

八日(土曜)

◇午後○時五分 古談 金錫九
◇同二時 常識講座 近親과遠親 鶯鸞圖 趙昌榮
◇同六時三○分 童謠 一、齊唱 노래北쪽별南쪽별 二、獨唱 三、齊唱애기각시 四、齊唱 아젓시모자 五、獨唱봄비 六、獨唱 비바룰 七、齊唱 서울구경 獨立門主日學校兒童 伴奏·朴敬善 指揮·崔貞順
◇同七時 農村講座 移秧과農家行事(二) 京農教諭 金雄珏
◇同八時 農村講話(總督府囑託 山崎延吉) 齊家의要道(六) 譯講·金玉鉉
◇同六時五○分 兒童週間新聞
◇同八時三○分 唱歌劇 一、歌 天下泰平 二、唱歌劇水宮歌 林玉尼 跋手·池龍九
◇同九時 獨唱 一、離別歌…슈-베-르作曲 二、자장가…모-차르트作曲 三、아베마리아…슈-베-르作曲 四、나의집…슈-베-르作曲 五、두擲彈兵…슈-망作曲 六、바다와陸地…베르듸作曲 歌劇「椿姬」中에서 李升學 伴奏金永煥
◇同九時三○分 映畵이야기 새벽의暴風 李愚興 音樂伴奏

家庭医學

慢性이되기쉬운 初夏의胃腸加答兒

病理에適應한生物療法

이제로부터 梅雨期에들게되자 食物을 腐敗케하는細菌、傳染病 結核等의病原菌이 활무로跳梁跋扈하게됩니다。 게다가 하이킹이니 피크닉이니하고 人家를떠나서 腐敗한點心、果實、飲料水를먹으라고 勸을맛기도하고、或은스스로 過食도하게되는機會가적지안케됩니다。 이러한때에 弱傷한胃腸이오래끌려痼疾도되며或은營養障害의原因으로서 結核그他의

諸病을併發 케하는등結果로보면큰失敗를當하게되나그動機는極히些少한不注意에基因한것을 알게됩니다。 처음에는다못가삼이쓰라리고트림이나올程度이어서그저比較的安心하고잇지만그實은이때가바로一時性과慢性과의岐路이니이것이漸漸甚해저서 慢性胃腸加答兒、胃下垂、胃아토니、胃潰瘍가튼疾病으로變하게합니다。 그러나、傷한곳은胃腸이나얼마지나면나을것이려니하고放心하고 治療를等閑히하는동안에消化器의障害는直接全身에影響을끼치는것이니이에서誘發되는온갓疾病을考慮한다면決코安心하고잇슬수가업습니다。 胃腸은마치工場의벨트와가태서身體의

모든器官의原動力 이되는고로消化吸收力이鈍해지면肺病、肋膜炎가튼內臟疾患、神經衰弱、貧血가튼病에侵犯되기가매우쉽게됩니다。 이와가치胃腸은 말하자면 萬病의根源地이어서胃腸病 特히慢性化한境遇에는 警戒를하지안어서는안됩니다。 不幸히慢性에걸니게되면 胃腸壁의消化液分泌에도異狀이생겨吸收作用이 極히不活潑해저서、뻬일려로말하면蒸發力이低下되여 餘鋼과沈澱物을清掃하여 組織의傳達을圖謀치안흐면能率이減下케만되는狀態에빠지게됩니다。 마찬가지로 消化機能도 根本的으로革新치안흐면 體力은 衰退하여갈뿐입니다。 그런데 最近酵母菌이라는 微生物의性質이 이目的에매우適應한事實이 發見되엿습니다。 卽에빠쓰菌이 充滿되여잇는 各種의酵素가作用해서 强烈히消化를扶助하는同時에 胃腸壁의

病衰細胞도賦活 케하여 吸收同化機能을一新케하니自然 營養補給이 充分케됨에따라全身細胞가 新銳勢力을挽回케되는것입니다。 그래서이가튼에 빠쓰菌의優秀한 性能을利用하려는目的으로 製造된것이곳『錠劑わかもと』입니다。 그組織을 보건대 우에말한酵素以外에 삐타민A·B·D·E아미노酸·구리고겡누구레닌等의 貴重한 營養分을 網羅하여잇는故로이것들의 綜合力으로 胃粘膜의異狀을 矯正하고 腸管을清掃해서消化液의 分泌을調整하는等消化系統을 全面的으로振興케하는

多한時에 메-빠쓰菌製劑로서許多한類似品의 首位를 占하게되얏錠劑わかもと』의 服用을 推奬하여마지안는바입니다。

兒孩의消化不良

이제로부터는 食物에 特히子女들의 섭生에 注意하여야 하겟습니다。 그 疾病도주로食物의 不注意로 因해서생기는것이니 그대로치안어도 小兒의 消化不良으로 因한死亡率이 매우놉흔까닭에 放心해서는 아니됩니다。 『錠劑わかもと』라는 메-빠쓰菌劑는過飮、過食에와、大小人의別이업시 消化不良에는特効가잇는故로子女가잇는家庭에는 常備하여두서야할名藥입니다。 只今『錠劑わかもと』賣藥店에서 사실것가트면 우에말한바 育兒上의注意와 婦人의疾病에 對한療法을詳述한『結婚에서育兒까지婦人一生의 顧問醫』라는 中島醫學博士의著書인小冊子를無代로進呈하겟습니다。 數多한 細菌中에서메-빠쓰菌가 有益한 것이어서 至極히 效利로서

便秘가 頭腦에끼치는害

不良少年에는常習便秘者가만타

『便秘는不良少年을만든다는 俚諺이생길만치不良少年에는便秘者가만타고합니다 大阪少年審判所辻判事는말하엿지만同氏가某團體에對하야收容中의保護少年十四名에對한一個月間에

排便 을 調査報告한바에依하면 每日大便을보는者는겨우二人 隔日或은二日만에보는者라도겨우一人이라는狀態이오、十八日만에或은二十三日만에보는者까지잇서서 엇제든 그排便狀態는 異常이라는말을지나친程度의異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少年들은 모도顔色이납부고 恒常싸홈과 自暴自棄의行動을敢行한다고하나 이것을醫學上으로말삼한다면 當然한結果이겟습니다 便秘中의糞便은 구더서容易히 排泄되지안흠으로自然肛門을刺戟해서 痔疾脫肛等의原因이되는것은 周知의事實이어니와 大便이腸內에

停滯 해잇는동안은 腸管을 持續的으로壓迫해서 大動脈의血行을妨害하며心臟의動悸를困難케하는害가잇습니다。 便秘로해서생기는 경우가매우만호며特히婦人에잇서는容貌를損傷케하는事實이만타고합니다。 血行의障害는 곳腦髓에影響을끼처精神機能을障害하지만、그外에 糞便의腐敗毒素로因해서血液을흐리게하기때문에神經中樞가中毒을닐어켜精神病의遺傳素質을가진者는 그때에往往精神病에걸니게되는일이잇다고합니다。 難治의 蕁麻疹其他食慾不振、消化不良의 原因이되며動脈硬化를니르키어腦溢血이나、中風을誘發케하는危險이잇습니다。 便秘의直接原因은大腸의

弛緩 과萎縮、腸內의分泌過少겟습니다。 그때문에 下劑를써서、機械的으로 腸筋을 刺戟한다든지 分秘를補充할것가트면 大便이通하기는합니다。 그러나이것은말하자면無理를하는것이오、腸筋의機能的異常을積極的으로矯正하는것은 아님으로一時的임에不過하며自然習慣性이될뿐만아니라、苦痛을니르키는等副作用이잇스며또는下劑를服用해서는안되는盲腸炎에不知中이것을쓰기때문에 重篤한結果를招致하는일까지잇습니다。 그까닭에最近에는그우에胃腸까지健壯케하는『錠劑わかもと』의服用이推奬되기시작하엿습니다。 이것은헤-빠라는藥用菌으로製한藥으로腸內에有害細菌을撲殺하며毒素를解消시키는卓越한作用을 하는成分을가초아잇슬뿐만아니라 多量으로包含된活性

酵素 는消化를도웁고 腸筋을 조여서 弛緩이 수축해진大腸筋을前대로 回復시키며分秘도異常히恢復케하는效果도잇습니다。 그까닭에痼疾된 便秘도이藥을服用하면은 漸次로自然스럽은大便을보게될뿐아니라 腸內의毒素와이것을釀生하는온갓症狀도차츰解消되는故로이藥理야말로『錠劑わかもと』가下劑가아니오 便秘의原因的療法이되는藥으로서 常用되는所以입니다

榮養と育兒の會는

我國民의健康增進과 乳兒死亡率의低減을 目的으로하고 設立되어그附屬事業의 하나로서 世界的으로 著名한『錠劑わかもと』를 一日에數錢이 못드는 低廉한實費 卽二十五日分 一圓六十錢、八十三日分을 五圓에頒布하야全國藥店에서 販賣케하고잇스나元來有名한藥에는 類似品이續出되는傾向을 免치못하는바이다特히『錠劑わかもと』는 取次口錢이僅少하기때문에利益을爲主로하는藥店에서는效果에大差가업다고하며이와類似한다는藥을勸하는고로注意하여주십시오。 外觀이나名稱은恰似해도製品이至難한微生物活性劑、더욱히專賣特許인『錠劑わかもと』는絶對로模倣할수업는것입니다。 『榮養と育兒の會』의所在는東京市芝公園大門(振替口座東京一七〇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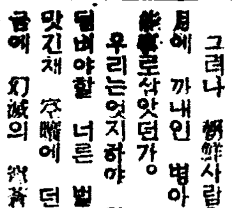
小學生時代부터잇는 胃病의苦惱가……

栃木縣 有本みつ

(前略)바루제가小學校五年生의코잇든十二才時의正月이엇습니다본래부터大食家로 攝生치못하는者이여서(中略)이것이動機가되어제의胃는매우衰弱해저버렷습니다。 조금만過食하여도마찰것갓고或은胃擴擊、胃痛을感하게되는等매우苦生하엿습니다。 그때부터입가장자리가러저恒常쓰라리며헐어不快하기란짝이업섯습니다(中略) 하로는오래간만에차저온親友의게이지음胃때문에매우苦痛으로지낸다는말을하엿드니『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면낫는다고알니어줍되다 (中略)그實나는半信半疑하엿습니다 어一摘될때가왓섯습니다지금까지 설사를하다가도곳便秘가되는等一定치안흔大便이끌려지고食後면반듯이이러나는胃痛이나또는俗談에말하는가삼쓰림도업서지고언제나 가슴을 壓迫하는듯한 不快感도업서젓습니다 그리고는동안에그처럼頑固하든입가장자리의부스럼도 次次나어젓습니다。 服用하기始作한지三個年後인只今에저는當時의不快하엿든것을想起할때實노꿈가치생각하게됩니다。 其後제叔母께서도口中이헐어서辛苦하신다는것을알고곳『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시도록勸하엿든바매우그렬든것이생각하시며저와가치『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십니다 그後맛날때마다、名藥을紹介해주엇다고깃버하십니다。(後略)

全安寶證
腸チフス豫防内服藥豫防劑(注射不要)
ヘテロゲン
東京芝公園大門、同仁製藥株式會社
發賣 各藥店에서販賣함

『灣上踏靑記』(13)



流不滯必不亂

—鴨江을끼고내리며(其二)—

李殷相

鴨綠江은 참으로 朝鮮民族의文化的歷史的寶庫였다 그라므로나는이제 이民族을對하야 深深히拜謝 하는것이다.

그러나 朝鮮사람은 悠々한歲月에 까내인 벙아리그대로만을 能事로삼앗던가.

우리는엇지하야 일즉이 긔꺼덜벼야할 너른 벌판을 風雨에 맛긴채 卒睡에 던저두엇고, 지금에 幻滅의 彩帶을어루만지며 나아가 受難無得의故中에서 허우적거리나.

變變無常의 세상이매 옛날잡간 번쩍엿던 한때榮華를 그람자면 英雄과서、못는이업는 高號으로 그롭에피가못도록 翻찬다한을 畢竟 오늘밤 베 빈버리를 무엇으로채울것이며、네 困한몸을 어디가 누일것인가。

無閑의人間이지리 江風이 얼굴을ノ치기로 李餘나 여기 清凉의 世界가 열릴까하고 코가트이다 트이다못해 도로 메이도록 바람을 마서보나 三生九輪의 불타는恩情만 도리어 부채질을 바들뿐이다.

남은 다 時運推進의 秘機를 못잡고서、저마다 英風、遠略을 殷히내여 民衆의 慶快와 賴歡을 때려고차섯이마 生아진되찰가리 뭐지 옛습을 때로는등안、朝鮮사람은 어찌하야 이鴨綠江의 急한波濤에서 겨거낸 抗爭力을 잃어버리고、또 이쉬지안는 江流에서 다가바든 耐久性을 觸아버린뭐、心腸氣血한潤境의羈束」노릇을 하자고 순소로 나아가 決斷하고 말앗던공

센바람 險한비속에 邊塞山野의 草花들은 오히려 제마다 柴忠을지니엇고 粟義를 가추어서、微弱한 못同類와 그氣槪를 달리하야 다만 主義과大陸上에서 제生命의 논흠을 자랑하는듯、지금도 지나가는 俗骨에 鴨綠江은 아 다 鷹都出嵐에 百戰치는 老將의 毛여운우슴을 웃는듯한데、사람은 홀우나 이草木만못하야、제가세워야할本領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못했고、多少의 酒慢가 잇다하여도 고것마자 克服할 긔운과 욕심을 품지못햇다.

이제 迷夢에돌어 아무런眼光도업고 그무슨魅力도업시 스스로도 너무도련이 외롭아진 뗏국호른는 孤兒의 호젓한 셜움쳘이를 이 神嚴壯麗한 鴨綠의 江波우에 비최어볼때、朝鮮사람 누고의우슴이 敢히 눈을로써 비꾸이지 안흘것이랴.

「엄벙덤벙」이란것이 그러케도 무서운 魔魔였고 「이럭저럭」이란것이 그러케도 알구진 妖兒여던것임을 確實히 참으로 確實히 알아야겟다.

朝鮮사람의 歷史와 實情을、제야바로 아는듯이 그리면서도 新聞文學으로는 新聞文學을 다 푸거가지고、이淨然、默默然히 흘러가는 鴨綠江으로가져와 면저 스스로 自己를 瀰能하고、그리하야 正大論剛한 法眼아래서 淸淨히、明快하게、남김업시 觀照하고、決執비다갈것이라한다.

지금 나는 여기에서 朝鮮人의 歷史와및實에對하야 繁多한 評辭로 詩辭理解하기를 즐기지 아니한다.

다만 形喩할수업는 沈痛한感激속에 悔悟와、豫覺에 무거운 포바랑이가 한꺼번에 가슴을 두드리거림을 압불이며、구르나마 무슨말을적는달진댄、人文永世의

基業을實定하고

民族萬代의 存榮을 實示하던 그날의 첫소리를 다시그즘謂대로 울려보는一方、幽閉되고 閉捧된 우리大呼吸을 完全히 世界的文化舞臺에까지 그숨이 오고가도록 열어세키어 朝鮮사람 生活에 潤光이 흐르게 함이도 잇지안흘수 업슬것을 이江畔의

그리고도잘난척

밧두렁에山모롱이에、그리고 저 瞬間우에自己밧은 제법 큰宇宙로 서둔다고나할까.

어제까지의 모든일은 다어제까지에 갓다고하자. 오늘부터라도 우리民族의 體格될것을 터야할것이오、文化의 威命되것을되살려야할것이니 온갖것의 沈滯를 流通하고 모든것의 停頓을推進하여야겟다.

언제까지나 남의下風에 自足할者아니오 무엇으로든지 남의 後塵을 甘受할者아닌 우리이매 形式에사로잡히고 空妄에뜨장단치고 纖細로 저틀가두어 하고더하고처하던 오랜동안의迷夢的哲學을 한숨의 發泄으로업시 完全히 언새버리고、協和生新한 勝武로大理想境에의 一心不亂 勇進無退가、오직저 鴨綠江의滔滔滾滾한 江波와가타야 하리라 고엣번이나 다시금생각하고맹盟誓하는것이다.

오늘의文學과文學의오늘

⑤……李 源 朝

그러나 인테리겐챠의 自己否定이라는것은 오히려 그客觀的現實의動向이 英雄的인데比해서 自己의 無氣力하고 (?)弱한것을 自覺할때에생기는것이다。그러나 차차로 인테리보담도 더進步的인 階級의動向이 表面的으로沈潛해가고 따라서 이러한 自己否定의方向이 다시 새로운肯定에로通하는길이杜塞될때에 이것은 길혼 絶望의深淵에빠지거나 그러치안으면 이때까지 自己自身을否定하려든 그位置에서 다시 自己自身을肯定하는態度로變하지안흘수업는것이니 우리는

近 來에와서 이두가지의傾向을 顯著하게 目睹하고잇는것이다。前者의傾向은 본래부터 잘낫타날性質에것이아니지마는 後者의傾向으로서는 近者 日本文壇에서 知識階級論이 맛는것이 그러케紛紜한物議를자아내엇든것으로서도 窺知할수잇는것이다。

勿論 이러한物議가운데는 知識階級偏重의 傾向도 업지안엇스나 知識階級의 歷史的任務가 새삼스러이問題되다는것은 다시말하면 否定의階級(?)이엿든것이 다시 肯定의階級으로서 擡頭하게되엿는것은 일직이 그압헤서잇든 進步的階級이 一時的後退를한데서 밀녀나온現象이지마는 여긔에는 보담더 그重大한原因으로서 파ー시즘의蹶起라는것을看過할수업는것이다。그래서

表 面上으로는 知識階級과 파ー시즘과의 對立形態로서 낫타나면서 일직이는 否定의階級이엿든 知識階級이 인제는 宛然이 한개의 進步的階級으로서 自覺하게되는 同時에 그네들의 旗幟는 自由라는標語로써워진만큼 오늘날에와서 文學上의 自由主義라는것이 항상 知識階級論는 形影相隨格으로問題된것이다。

그러나 嚴密한意味에잇서서는 文學上의自由主義라는것은 成立될수업는것이니 自由主義라는것이 萬一 파ー쇼과對立되는것이라면 그것이徹底한自由主義일때는 벌서 自由主義가 아닌것으로 昇華하는때문인것이다。그럼으로 自由主義의限界는 行動과 意欲의極限에잇는것으로서 오히려 意欲的인데 지나지못하는것이니 이러한

自 由主義의 派生的現象으로서提唱된 能動的精神이라는것도結局은知識階級의有閑性을最大限度로 膨脹식힌것이나마 亦是 이러한能動的精神이 意欲的으로는 存在한다고하드래도그것이 行動化할때에는 반드시어느方面으로도 나아가리라고는保證하기어려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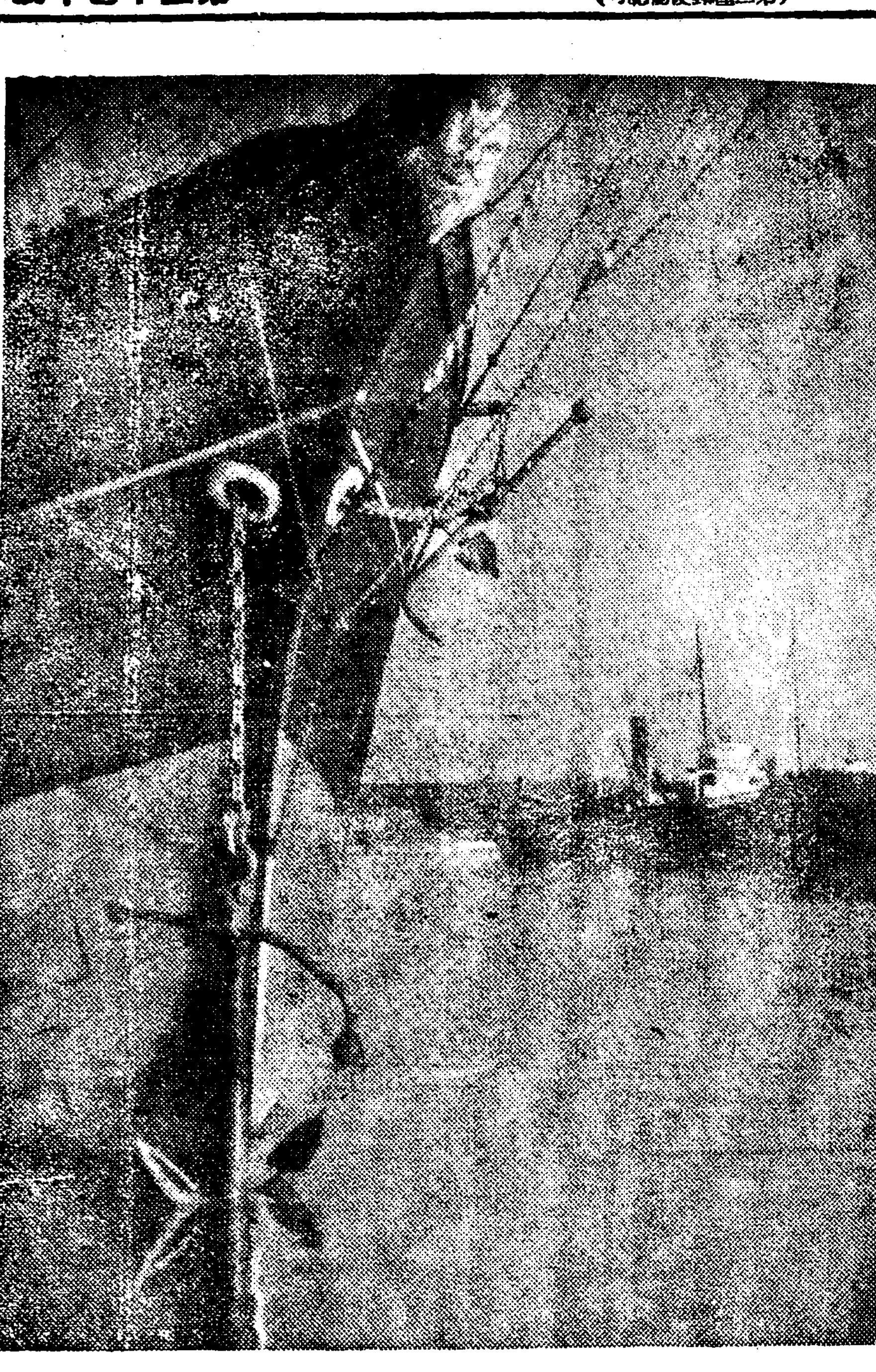
이러한 意味에잇서서 일즉이 李軒求氏를通해 우리 文壇에도 紹介된 메르난데스의 行動主義라는것은 그文學論의根據라든지 또는 가튼 사람의 지ー드에게 보낸公開狀과 아울러생각할때오늘날의文學을 云謂하는사람들의 한번 더깁히생각해볼必要가잇지안흘가하는것이다。

메르난데스의思想的根幹은 다 아는바와가티 베륵송의哲學的影響을제일만히입은것이다。

勿 論 베륵송에게 잇서서도 存間——客觀에 對해서 考察하지안는바는아니지마는 亦是 베륵송의特徵은 그 『純粹連續』이라고하는 生命의內面的인創造的、展이라는것을 그 哲學的思想의根幹으로한데잇는것이다。그러나 메르난데스에게잇서서는 그『行動的人間主義』라는것을 說明해말하기를『個別的人間을 全體性과 獨自現實가운데에서보는데에는 오직行動的角度에서만 可能하다』고하엿다。여기에서 우리는 顯著한 베륵소니슴의 足跡을 볼수잇는것이나 이行動的角度라는것은 實로重要한意味를가진것으로서個別的인人間이라는것을徹底하게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모리해도 베륵송이말한『純粹連續』의 面을代表하는同時에

行 動이라는것은 이러한直線的인 純粹連續만이아니고 오히려領域的인것이업시는 생각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行動이란말은 主觀的이면서도 항상 客體가豫想되는것이니 이것은 우에서 내가말한바와가티文學의오늘과 그性質을갓치한것으로서 이主觀과客觀의統一된 行動의世界에서만 이때와여긔가統一된 完全한오늘의獨自的인 全體性을볼수잇는것이다 그러나메르난데스의「行動主義」가 그客觀的領域을 어느面에서 取할는지는 豫斷하기어려우나 그 지ー드에게보낸 公開狀을보면 그는 벌서 自由主義에對해서 斷念을한것만은事實이다 그리고 인데리겐챠는 自己의 獨自의世界에서다시한거름더나아가는데서만비로소 그存在理由가잇다고 하엿스나 이것은

決 코 情熱한것이아니다。그럼으로 現代作家의이러한 苦難의過程에잇서서 雄篇大作이 곳目下에낫타나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것이다 그럼으로過去의 젊은文學者들이 넘우 急한생각에서 自己의測定의레벨이철업시올나간것을 보아서는차라리 現代의作家에게서 바라야할것은 作家倫理性이 일가한다 끄리키의行程도 그럿커니와 지ー드의一生도 우리에게는 만흔 敎訓을주는때문이다 ——完——



◇港口의哀愁 (첫여름의航路에오르든기前)……

나의靈魂의 스위스트●홈

林 香

섬긴 해스발이 희미하게 새
여드는 거믄森林속
太古의沈默과靜寂만이 이곳을
직히고 잇나니
나의靈魂은 密林의 歷史를뒤
적이고잇다.

향우넝출 빼더오른 이끼깐가
지우에 늙은哲學者 울벱이는
구봄이 머물러가고 달빗이쉬
여가는
久遠한青空의抱擁이 노래하는
沈靜한 森林의바다
나의靈魂은 이곳에 지친 나
래를펴고 새로운生命의 나라
를 이룩하노니
森林의 리즘·詩
森林의旋律·音樂
오、森林은 나의靈魂의 스위스
트·홈!

一九三五、五、

비오는길

金在善

버거오는
숨사히 깃들거듣랏치면
어느때나 먼저간이의 설움어
내가슴에 안기는듯해
맘이 괴로웁습니다

비마진풀닙을 밟고가는나그네
의발이
물에 펑덩할때에면 내맘도빠
지는것가래서 얼른 발물드네

海州藝術講演禁止

【海州】괴보=본보해주지국주최로 오는륙월오일 해주회관(海州會館)에서 예술문제강연회(藝術問題講演會)를 개최하기로되엿든바 해주서(海州署)에서는제출된 원고의내용문제로 금지를하야 부득이 중지키로되엿다한다

詩論 詩의製作過程 (5)

(午前의詩論、基礎篇續論)

金 起 林

○

單純한 技術的製作의 藝術을 바라는것은 누구냐? 그것을물리업시 文明의現狀에대하야 주저업는批判을 꺼려하는사람들일것이다

○

詩人이 조흔 詩를 쓰기위하야만 산다고하는것은 詩人에對한 最大의侮辱이아니면 아니된다。

조흔詩를쓴다고하는것은 生自體의唯一한目的이 될수는업다。그것은 單純히 詩作그自體의目的에不過하다。

조흔生을살기위하야——이는詩人뿐아니라 모ー든사람의 倫理的인態度다。詩人의 이러한態度는 詩의製作過程에서의人間的基本的 //포ー즈//고 詩의製作에 손을대는瞬間부터는 그의全目的은 조흔詩를 맨드는

一點 으로 向할것이다。

即 詩人은 조흔生을 살기위하야 詩를쓰는것은아니다。다니말하면 詩는 生、道具는 아니다。그것은 人間的一般的價值와 藝術的價值라는 各各다른領域에屬한다 이러한 여러개의價値의 系列사이에는 勿論 位置의高低가잇것스나 그러한比較는 더廣汎한 人間學 乃至文化哲學의學說分에 屬할것이다。

이境遇에 한개의價値로서 論議되는詩는 個個의作品이 아니고 抽象的인 詩一般일것은 勿論이다

詩에 엇서서의 生의關係의 限界를 더端的으로말하면 詩는 아래의두陷穽을 避하면서 實가斷岸의 絶頂에沿하야 生에갈로위가야 한다는말이다。

하나는 詩를 生에잇서서의모ー든價値의 參列속에서 最高의位置에 올려놋는일 그래서 때때로는 生그것보다도 더노픈곳에詩를 모시는일

다른하나는 生그것에서 詩는 샘처름 소솟것이고 그것만으로 詩가된다고 생각하는일

古來로 수업는詩人들이 이두陷穽에 빠저서 시들엇고 오늘에와서조차 그속에서 헤매는 수업는그後繼者들을본다

일즉이는 藝術至上主義者가 第一의

陷穽 에 빠젓고 그보다도 더많흔『로맨티시스트』들이 第二의 陷穽에 빠저서 詩를일허버렷다。

○

詩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生의壓力을課하거나 또放任할때 그것은 그릇된로맨티시즘에 홀러버리고 그와反對로 아주生의 浸入을拒否할때 그것은 똑마찬가지로 過度한古典主義로 떨어지고만다。

○

生의냄새라고는 도모지풍기지 안는詩가잇고 또 그것을目的하[illegible]에조차 어떠한모양으로든지 그 [illegible] 그러나 그러한詩

詩人 自身의 生活의그림자는 깃드려잇는것이라고 생각한다。

生에서 全然絶緣된詩는 生에대하야 絶緣狀態를企圖하는 그 詩人의 生活態度를 反映시키고잇다고볼수잇다。

이點에대하야는 詩人과批評家의意間은 各各對角線으로 背馳

即 詩人의[illegible] 될수잇는대로 그의[illegible]서 獨立한 [illegible]한다。完成되여 번그의손을떠난 作品의詩는 그와는아모關係업시 그것自體의獨創作에依하야 呼吸하기를 願한다。

그러치만 그것을對象으로하는 批評家의便에서 본다면 어떠한 詩도 그作者의

精神 더適確하게말하면 生의 一部分으로서 비최게엇다。다시말하면 詩는詩人의生活의謂産物이거나 結實이다。

그러니까 批評家는 어떤詩든지 그詩와 作者의 人間과의關係에서 考慮할수밧게엇다。나아가서는 그詩속에 담긴人間的價値를 發見할것이다。다음에技術的價値를 抽出한다。그래서 그의 最後의 또 最高의일은이人間的價値와 技術的價値가渾然히 비저내는 綜合的인 藝術的價値를 發見하는일이다。

그러나 그는 詩以外의 外在的價値——即政治라든지 宗敎라든지 倫理에 비최어서 어떤

個個 의 作品의價値를 論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前述한바와가티 詩의 批評以外의 領分이고 그境우에조차 거기서 取扱되는것은 個個의詩가아니고 詩一般인것이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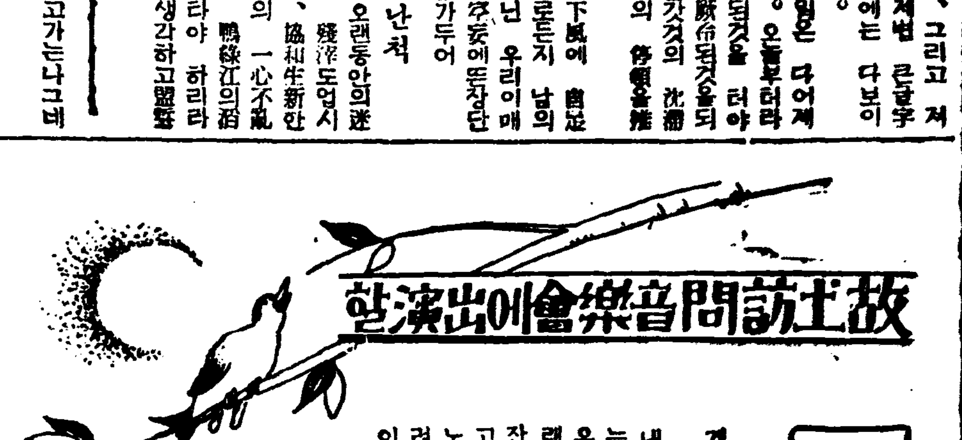
新刊紹介

▲文敎의朝鮮 六月號 朝鮮總督府

六月二十一日(金)長谷川町公會堂
『原稿提出』六月七日까지『佛專學生會』에

第三回全朝鮮男女『專門學生雄辯大會』

主催 中央佛敎專門學校學生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詳細追後發表)



故土訪問音樂會에出演할

在東京音樂家들의全貌(17)

그녀의날개와

쏘프래노 尹明淑孃

녀인이 노래를부르는 자태에게 정서(情緖)교육을할수잇다 정서가 업는사람은 그것은 목내이(木乃伊)와갓다 정서가업는사람에게 문화(文化)가업스니 우리는 가정부인이 아이들에게노래를들려주고 사람과사람사히에 잔말보담은 그대신 노래를 주고밧는것이스타 그노래는 슬픈노래고깃분노래고、다조타 오히려 웅변(雄辯)보담은 노래가힘이잇나니 연설(演說)에는 가부(可否) 가갈리지만 노래에는 다가치심취하고 거기서 힘을엇고 자긔생활의 큰영향을밧는다 여기에 예술에대한지대한가치가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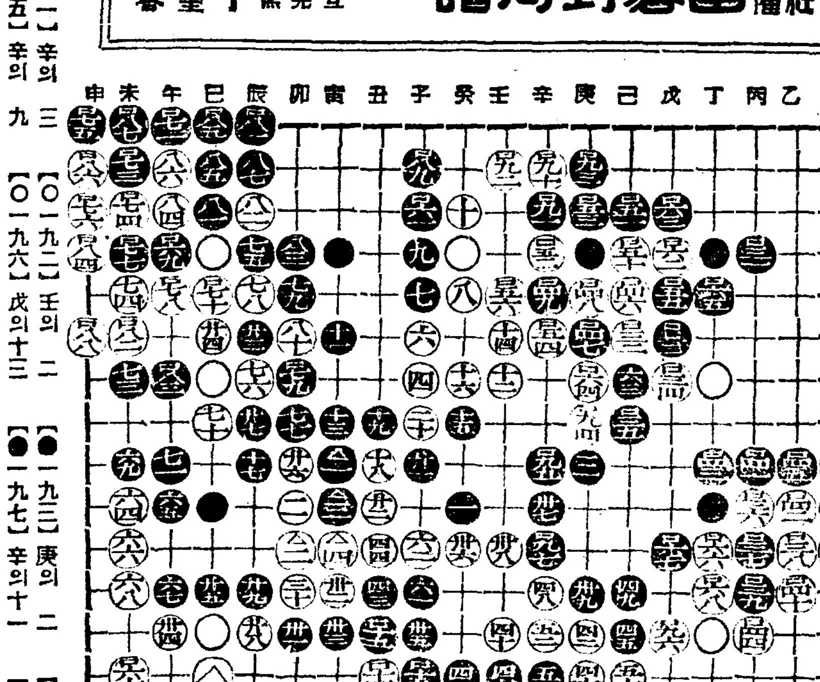
노래를모르는 사람 이엇지시(詩)가잇고 문화이잇스랴

여기에 노래로 우리들에게령혼의 날개를달라는녀성이잇다 서울에서나서 숙명(淑明)녀고보를맛추고 동경가서 성악을연구하는 윤명숙(尹明淑)양이잇다 그는 일편단심(一片丹心)을 노래에밧처 우리들의 마음의창문을뚜드리고 우리의 혈맥에리듬을주라는녀성이다

이아롱다운맘만이라도 우리는 갈채를하여야할줄안다 이바면으로도 만흔사람이잇고 쓰러진초가집속에서도 지금에이따의멜로듸 가잇서야만되겟다 우리들을 위하야 조흔노래를부를것이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12)

五先 白 柳鋼河 黑 丁奎春



【●一九一】辛의 三 【○一九二】壬의 二 【●一九三】庚의 二 【○一九四】庚의 八
【●一九五】辛의 九 【○一九六】戊의十三 【●一九七】辛의十一 【○一九八】巳의十五
【●一九九】辰의十五 【○二〇〇】巳의十四 【●二〇一】寅의 九 【○二〇二】卯의十一
【●二〇三】寅의 十 【○二〇四】寅의十一 【●二〇五】甲의 十 【○二〇六】甲의十一
【●二〇七】甲의 九 【○二〇八】申의十七 【●二〇九】申의十八 【○二一〇】申의十六

◇蔡極文氏評

黑白 變方이 區域을 已定하고 晏堵無事함으로 末端修補에 丹臒已耳라 白은 辛의 二巳의 十五黑은 庚의二 甲의十 蠻觸競爭이다 白이 先次甲의九로 除하면 過路에 一端은 奪得이아닌가 白이 庚의八로 着지말고 壬의九로 黑一點을 取하면 此亦末端利益이 差過할을노推想하노라

朝鮮醫界展望 (1)

城大醫學部病理室 李在崐

過去의朝鮮醫界

漢 方醫學이 朝鮮에처음들어온것은 三國佛敎文化時代라고 傳하나 이事實을 左證할만한確實한文獻上記載는업다 筆者가調査한바에依하면 唐太宗貞觀年에 唐人孫思邈가 著述한眞人備千金要方과 唐德宗乾年에 唐人杜光庭이著述한 王國經이라는 醫書가新羅에 또大陸醫書宋王纘銅仁經楊士瀛著直指方論、醫脈直解仁齋直指方論、唐愼微著大觀本草牛肱著類證活人書、元鄒鉉續壽親養老書、羅玉華著肩科纂編等을高麗에明李梴의 著醫學入門、張樗編醫學正傳、王瑞鶴編軍中醫藥、襲廷賢編萬病回春、高武撰鍼灸聚英陳城編 微病症治類方、王肯堂編證治準繩 劉宗厚編玉機微義方賢編 奇効良方陳念祖編 醫學全鍼等이李朝世上에 輸入되엿다는文獻이잇슬뿐이다 李朝中葉에는聚英함만한 名醫宗系大夫 許浚氏가 出現하야 醫學界에 一大革新을 주엇는데 許浚氏는十四代宣朝와 十五代光海君에게 御典醫로서奉仕하야 名聲이國內는勿論이요海外에까지떨처서 漢方醫學의本家인中國을 威壓하고 氏의醫書東醫寶鑑諺解胎産事要는 明淸醫界의 明星이요 日本德川將軍時代 漢方醫의 指針이되엿다 그러나其後는名醫가 出現이업고 醫術이 漸次衰退하야저서 今日의 狀態에까지 劉萃한것이다

西洋醫學은 明治四十年即光武十一年에 처음輸入되엿는대 現在 京城蓮健洞一隅에서잇는 大學附屬病院이 大韓病院이라는 明稱을가지고 誕生한初生兒이엿든것이다 뒤를이여서滿州全州咸興에

慈 惠醫院이생기고 日韓合併後 公醫 警察醫 衛生技術官 慈惠醫院이增設되야 一般醫業에 便益을주고 衛生機關의 充實과社會衛生의 進步를 積極的으로圖謀하야왓습으로서 山村僻地에까지 西洋醫學의 普及을보게되엿다

現 在

(一) 醫師數

現在朝鮮에 居住하고잇는 資格醫師의數는 一千九百餘名에 不過하고 醫生이 絶對多數로四千四百七十餘名이나되며 限地開業醫는二百七十餘人이라고한다 本人이말하는 資格醫師라는것은大學또는專門學校를 卒業한者或은 이와同等의 資格이잇는者를 意味하고 限地開業醫는 朝鮮總督의免許로 開業한者로醫師規則에 依하야 地域과期限에 制限이잇는者이나 一般診療는 資格醫師와달름이조곰도업고 公醫도될수잇다 醫生이라는것은 過度期에 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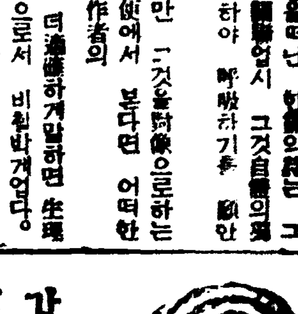
醫 療機關으로 重要한것인대優秀한 資格醫師普及과 同時에其數는 漸次減少되고잇다 醫生에도 두가지種類가 잇는대一은地域과 期限에 制限이업는者로大正三年度 醫師規則制定當時에免許된 三千五百名의 醫生이 이에屬하고 二는其後 醫師普及 障害와 都市集中을 防止하고저 새로免許한것인대 簡單한 試驗을보와그에 合格한者에게三個年또는一乃至二回이라는 期限과地域을制限하야 開業資格을 준者이다 其他朝鮮에는 特殊한醫事制度로 公醫라는것이잇는대 이것은道知事任命으로一般診療以外에 傳染病豫防 地方病調査 種痘 學校衛生 工場衛生 藝妓娼妓的婦等의 健康診斷 死體檢案 行路病者와 貧民患者의診療其他 公衆衛生及 醫事에關한事項을

執 行해야할義務를가진者로 年額一千五百圓內外의手當을 밧고 一郡에一乃至二名式 朝鮮全道二百二十郡에 配置되여잇다 이公醫制度는 大正三年四月부터 施行되엿것이다

醫師의數는 近年甚히增加하야八百七十二名밧게 안이되든大正四年度에比하면 約倍以上의增數가 되엿스며 京畿道가 第一多數로 日本內地人이 二百八十四名이고 朝鮮人이二百十二名 外國人이五名 總合五百一名의醫師가 現在 居住하야잇다 忠淸北道에는朝鮮人이二十五名 日本內地人이十四名 合三十九名 忠淸南道는朝鮮人이三十三名 日本內地人이四十四名 合七十七名 全羅北道에는 朝鮮人이四十三名 日本內地人이 四十五名 外國人이一名 合八十九名全羅南道는 朝鮮人이五十三名 日本內地人이 七十四名 外國人이二名 合一百二十九名 慶尙北道에는朝鮮人이六十一名 日本內地人이六十四名 外國人이一名合一百二十六名 慶尙南道는 朝鮮人이六十九名 日本內地人이一百二十五名 外國人이一名合一百十九名黃海道는 朝鮮人이 九十四名、日內地人이 二十四名、外國人이 一名、合 百十九名 平安南道에는 朝鮮人이 百三十九名 日本內 內地人이 六十一名 外國人이 五名 合 二百五名 平安北道는 朝鮮人이一百七名 日本內地人이二十五名 外國人이二名合一百三十四名 江原道는朝鮮人이五十二名 日本內地人이十七名 合六十九名 咸鏡南道는朝鮮人이七十三名 日本內地人이五十八名外國人이二名合一百三十三名 咸鏡北道는朝鮮人이四十名 日本內地人이五十名 外國人이一名合九十一名이라는統計로 江原道가 第一少數이다 上述한바와가티

朝 鮮에居住하고잇는 醫師中 日本內地人이八百八十五名이고 朝鮮人이一千一名이며 外國人이二十三名이다

人口一千名을單位로醫師와의比率을따저보면 京畿道가五、二五忠淸北道가 二、四九 忠淸南道가 二、三九 全羅北道가二、二五全羅南道가二、〇四慶尙北道가二、七二 慶尙南道가 四、〇四黃海道가二、七九 平安南道가四、五三 平安北道가四、一二 江原道가二、九四 咸鏡南道가五、六〇 咸鏡北道가六、五六의比이다



黑風 (46)

韓雪野 作
金熊超 畵

강도(强盜) (三)

상철은 그광경을보고 상래도하고 우섭기도 하엿다 일이너무 거칠게 되는것을 보고서 따라오것을 후회하엿다 될수잇스면 회피할생각도 업는것은 아니나 시위를떠난 화살처럼 입의 저지른일이라 거둘수가 업서서 왕한의 하라는대로 부종하는수밧게 업시되얏나 상철은 이러서고

『이리나와』

하고 은석을행하야 말하얏다 은석은 새파라케 질려업들피과 떨리는 말소리로 왕한을향하야

『여보 할말이잇스면 거저하지 이게 무슨해거요 아모말이든지들어줄터이니 말슴을 하시오』

『아니 나는 너에게 무슨청을 하려온사람은 아니다 너에게 소작을어드러 왓다든지 도움을 취하러 왓다든지 그러한등의 청구를 하려온것은 아니다。다만 너의번을을 가라처 온것이다 잔말말고 하라는대로 하여라 깟대하면 죽여버릴것이다』

하는 왕한은 상철을향하야잡어나리기를 재촉한다

은석은 무슨말을 하고자할지음에 상철은 달녀드러서 은석의며살을 잡어서 끄러나려 뚤아래에 업허노앗다

『자네 가지고온 막대이잇지그것이 지금쓰랴고 가지고온것일세 그것으로 자베분이푸러지도록 그놈의 볼기를 실컷 따리게』

하고 왕한은 상철에게 말하얏다

상철은 집장사령처럼 은석의 바지를 뭉기고 허리띄로 은석의 두발목을 묵거노앗다 은석의살은 기름지고 윤택하얏다그것을본 상철은 흉연히 이상한 충동을 바덧다 그것은 은석이가 그러한 살몸으로 자기와정혼하얏든영애를 짓밟벗쓰리라는것을 연상한 까닭이엇다 상철은 머리끗가지 분이낫다 그리하야 대매에 은석의볼기를 끈흘뜻이 흥분되얏다

은석은 땅 바닥에 업드려서 엇지할수가 업섯다 정위를 따저서 항거할수도 업고 그러타고 체면상에 애걸복걸 빌수도 업섯다 그리하야 당하는때로당할요량을 잡고서 아모말이업시 잇섯다

상철은 분이난김에 손까락갓에다 침을 뱉나서 때를 단단히 잡고서 한손에 은석의 볼기에서 피가 나도록 삼십도를 때렷다

은석은 처음에는 아모소리가 업시 조용히 맛다가 나종에는 할수업시 아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를 비비트럿다 은석은 하늘이 문허지는듯 하얏다 은석은 호화로운집에서 나서 귀하게 자라고 호강으로늘것다 어려서부터 종아리한개마저보지못하고 손틈미테 가시만드러도 의학박사를 불너대고남에게 대단치아니한 창피만볼을드러도 뗘예 회손죄로 고소를하든 터인데 소작인의 아들에게 추상가튼 호령을 듯고 맵떡에서 뽈기를 맛는것은 꿈에도 당할수가 업는일이엇다 은석은 꿈인지 천시개벽이 된것인지 히미하게 생각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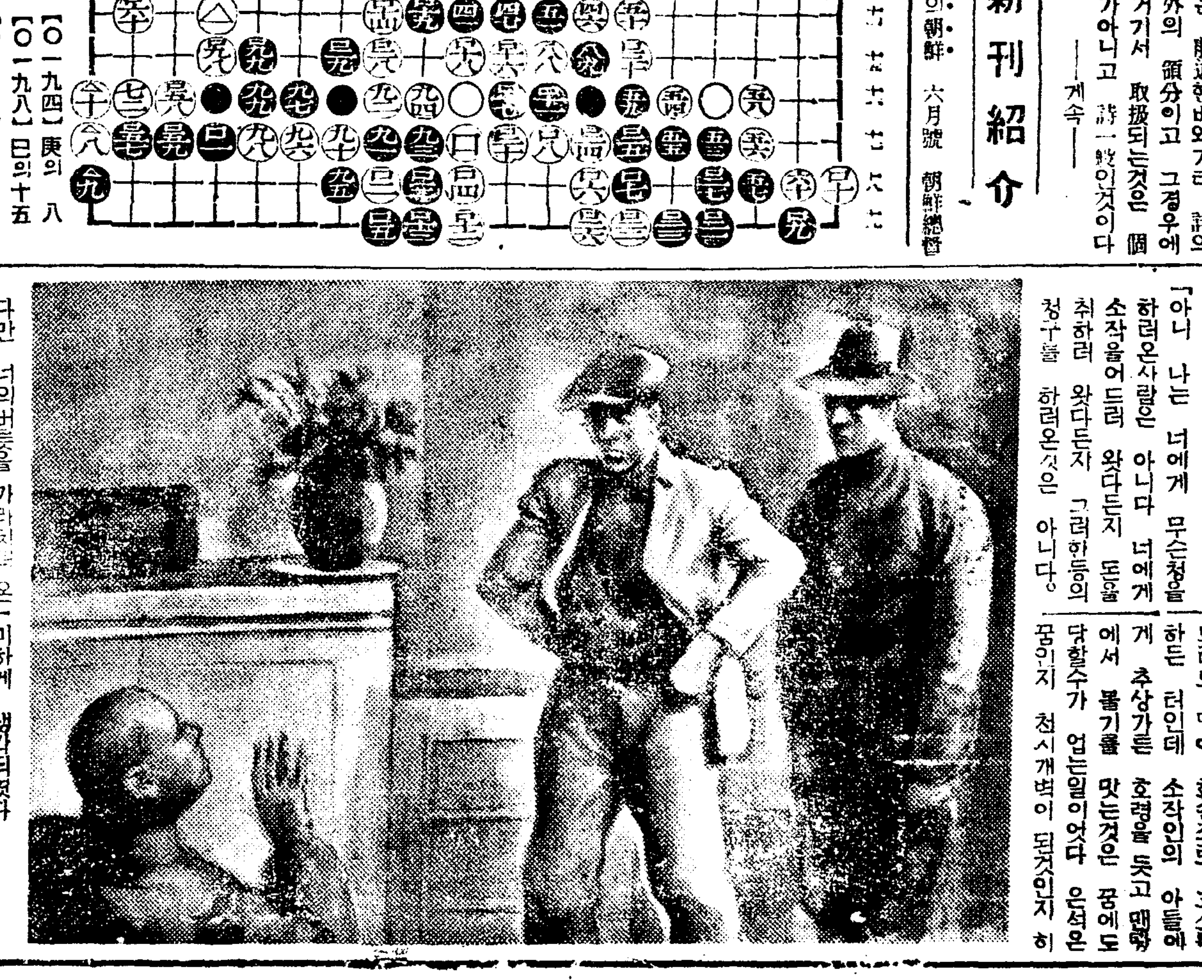
왕한은 은석의 압흐다고 소리지르는것을 듯고서

『네가 뽈기맛는것이 그대지도 압흐냐 정호하얏든 처녀를 무리하게 빼앗기고 그정혼하얏든 두집에서 밧는고통에 비교하면 너의 압흔것은 십분의일도 못되는것이다 나에게서 바든 너의 상처는 치료할수가 잇지마는 너에게서바든 우리들의 상처는 치료할수가 업는것이다 너의 윤택한볼기는 무엇을먹고 저러케 살이찐것이냐』

『네 그놈을 끄러올녀라』

하는 왕한은 상철을보앗다상철은 자유로 움직이지못하는은석을 반은끌고 반은안어서 방안에 드려노앗다

은석은 매를마저서 살어잇호고 용둥당하야서 마음이압흐다 압호고 괴로운 몸과、분하고무서운 마음이 서로 친노하야서 새파라케 질녀잇는 칠분의 송장이 되얏다 은석은 눈을감고 누어잇섯다 왕한은 면하글을바라보앗다 상철은 험을과이고문압해 안저다 큰바람이 지나간뒤처럼 한참동안 잠잠하얏다 방안의 공기는 비리고 무거웟다 태양은 서쪽으로 기우럿다



耕地面積八段步에 負債는六百六十圓

剩餘收入이負債를整理할수잇슬까? 注目할咸南自作農創定

【咸興】함남도에서 금년도에 창정한자작농은 칠십오호로 정지는전(田)이십삼정보 답(畓)삼십사정보 합 오십칠정일반으로 일호당전삼반일묘답사반칠묘 합하야 팔반육묘로 그경지가격은 오만일천삼백팔십사원이며 대부금은 사만구천오백원으로일호당대부금부채＝륙십원일호당 자비추당은이십오원십사전이라는바 과연그들은경지팔반묘의 잉여수입(剩餘收入)으로 거대한부채를 정리하여갈수가잇겟는가 자못의문이라하지안흘수업다한다。

文盲退治事業 功勞者表彰式

【雲山】운산군유림계(本郡儒林稧)의주최로 지난해십일월부터금년삼월까지만오개월동안야학회를군내방방곡곡에 설치하여 글소경으로 헤매이고잇든 만흔소경들의눈을뜨게하엿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그후그사업에대한 경비의 거출은 군내유지들의 의연회사가 무려만여원(萬餘圓)을 돌파케되여 공고한긔초를 세웟스며 사업의진섭은 장려위원지도자등의 진력으로 개회장소백칠십개소 강사이백사십칠인 야학생오천륙백사십일명 이라는놀라운 큰수확을엇게되엇다 그래서지난 륙월일일운산군향교에 그사업에대한 지도의위안과 거액긔부자의 표창겸문맹퇴치 사업축하회를 개최하엿는데 당일회집한군중은 무려오백여명에달하엿스며 정각오전십시가되자 유림계총재 림군수(儒林稧總裁林郡守)로부터 표창장수여와각지에서온 유지제씨의뜻깁흔축사로서 식은맛치엇다한다

問題의祥、間線路 全通期尚杳然

【中和】중화군상원(中和郡祥原)과간동(看東)간 상간선도로(祥間線道路)는 지금으로부터 팔년전인소화삼년에긔공하여 공사를완료하게되엿스나 청룡면룡곡리(天谷面龍谷里)부근 약삼십간쯤은소유자김응현(金應鉉)씨가 당시당국과감정이악화되여 승락치안어팔개년이나 되도록구도로로 도라단이게되여 일반의불편도 다대하거니와 이만한문제를 팔개년이나두고 해결치못하고 끄러나려오는것은 당국자들의 무성의함이라고 일반의 불평이만타고한다

金永穆氏美擧

【昌城】창성군남상면월평리(昌城郡南上面月坪里)김영목(金永穆)씨는 십팔년간남상면기수로재직하야면내산업개발에진력하야 면민의송배를 밧든바 금번가계상관계로 면으로사직함과 동시에 면내씨나락업는 벼여농가에증인(贈與)하야 씨사탈석을무상으로 배급하야 씨사입의긔념으로 성의를표하엿다는데 일반의칭송이 자자하다한다

鳳城縣의馬賊隊 同胞三名을拉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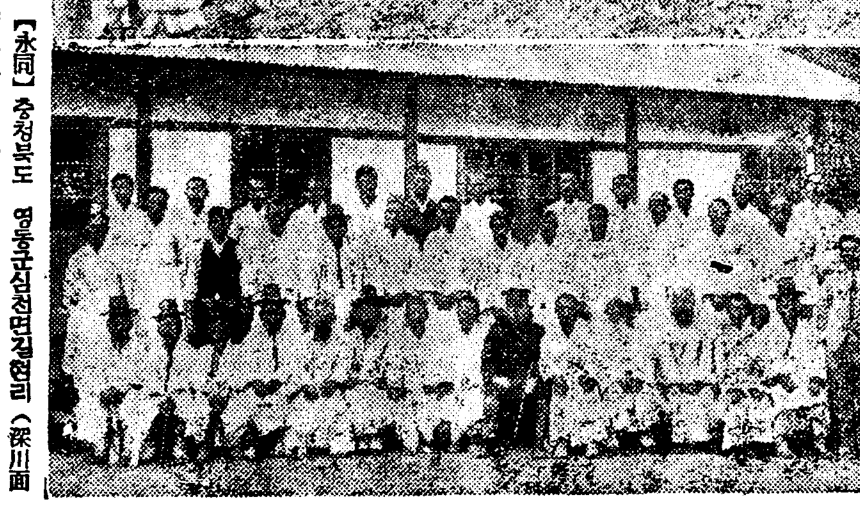
婦女凌辱한密偵을打殺햇다고 拉致週餘에終無消息

【新義州】본적을의주군월화면오천동(義州郡月華面吾川洞)에 두고 만주국봉성현제이구 랑반성촌두도구(鳳城縣第二區楊伴城村頭道溝)에이주하야잇는 조선농민서학빈(徐學彬)(四一)의집에는 지난달이십사일·오전열한시경 마적인듯한 이십육칠세의 만주인한명이나타나 곤동으로 집안사람들을 협박하다가 주인서학빈이가 농사를지으려 밧게나가고업는긔미를알자 그처황씨(黃氏)(三五)에게 달녀들어 폭행을한후강제로 정조를빼앗고 유유히다라낫다가 그날오후네시경 또그부근에나타나 본적을정주군(定州郡)에둔 역시조선이주농민 김창희(金昌熙)(四一)집에 침입하야 그처주윤선(周潤善)(四二)에게폭행을하려 강간을하려달녀들므로주씨는 죽을힘을다하야 고함을지르며 그남편에게구원을 청하엿든바 남편김창희는 전긔서학빈과그동리조래화(趙來和)(二八)황귀남(黃貴南)(三五)조래원(趙來元)(二一)을청하야가지고집으로달녀와도적의행방을수탐한결과 부근만주인밀매음집에누어잇는것을 발견하고이를 붓잡으려하얏든바적은곤동을휘두르며 달녀들므로이에 쌍방의격투가이러나 결국그도적을 현장에서따려죽인일이잇섯다 지난달이십구 이곳을관할하는 석두성(石頭城)경관주재소에서는 전긔조선이주농민들에게사실을조사코저 호출하얏슴으로 전긔농민들은 이에응하야경관주재소로가든중 도가구(陶家溝)란곳에 이르자 돌연마적의떼가나타나 『웨서우리의정탐군을죽엿느냐?』고하며 그문푸리로너희들을인질로 잡아간다하고 이주조선농민 김영수(金永守)(四〇)서과환(徐過煥)(二二)동인의처 최보패(崔寶貝)(二〇)의 세명을잡아가지고 다라낫는바 아직도 소식이묘연하다고한다

新養里無產夜學

校舍까지新築落成 李亭權氏努力으로

【沙里院】사리원읍 시외신양리(新養里)에사는 청년리형권(李亨權)(二七)군은 일즉이 대판상공학교(大阪商工學校)를 고학으로졸업하고 고향에도라온후 무산아동을위하야 야학원(夜學院)을설립하고 약일년동안 희생적으로로력하야 현재아동이팔십여명에달하는데 근동에서 씨의로력에감복하야 동내유지 리봉신(李奉臣)씨의 학원신축긔지의희사를비롯하야 푼푼이모은 동내유지의긔금으로 학원을 신축하엿다고하는데 일반은그의렬성을칭송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夢見寺點眼式

【楚山】평북초산군초산면앙토동(楚山郡楚山面央土洞)김문걸(金文杰)모친 최치범(崔致範)(六二)녀사는삼년전부터 불교를신앙하야오든바 초산군내에는 완전한사찰하나이업서서 불교계가한적하야젓슴을 유감으로의미여 교회를확진할겸 포교를목표삼아 금춘공사에착수하야 천여원의경비로몽견사(夢見寺)를 신축하고 불상까지승좌케한후지난이십칠일 점안식(點眼式)을 거행하얏는데 참석자가삼백여명으로 대성황을일우엇스며주승은 안은암(安隱庵)김락윤(金洛允)량씨가주재키로되얏는데 장래에는 사회에제공할 각오라는것을 최녀사는언명하얏다고한다

◇寫眞…點眼式記念撮影(上)

◇永山學院落成式

【永同】충청북도 영동군심천면길현리(深川面吉峴里)는산간벽지에잇는 구십여호가 집단거주하는 중촌으로 교육긔관이업서서 항상유감으로생각하던중 작년구월경에 박희중(朴喜仲)송봉호(宋鳳鎬)박미동(朴美同)박희우(朴喜雨)등사씨가 헌신적활동한결과 본동에잇는 교육계(敎育契)의 소유인시가오백여원의 토지를긔부로엇고 최하로매호에일원이상의 긔부를어더서 총공비 팔백원으로 교사를신축중이던바금번락성식을 성대히거행하고 영산학원이라는 일홈으로개교하엿는바 아동수는 칠십여명이나되며 교원으로는 박희우(朴喜雨)씨가 무보수로전심교수하게되엿는데 일반은 그장래를 만히긔대하며 전긔수씨의 로력을감사함을 마지아니한다고한다

◇寫眞…永山學院落成式記念撮影(下)

無罪釋放十九名에! 無期停學處分

『메이데이』檢擧事件에對한 咸興高普當局의處置

【咸興】오월일일메이데이를 전후하여 함고생(咸高生)사오학년삼십여명을 검거하엿다가 그중십구명은 석방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교에서는 석방즉시로 석방자전부에게 무긔정학처분을 단행하여일반의 심심한주목을 끌고잇는바 금후방침에대하여 동교교장의의견을들어보면 무긔정학처분당한 학생들의 태도여하로는비교적속히 복교를 허할방침이며 근일중가장개준할정이현저하다고본는 학생네명에게는 위선복교식힐터이라고한다

鷺青學院後援會

【永登浦】시외로량진(市外鷺梁津)로청학원(鷺青學院)은십여년전에로량진청년회(鷺梁津青年會)교육부사업으로은로학교(恩露學校)교실을빌어가지고 만흔무산아동을 교양하여 오든터인데 원래십여년이란 긴력사를가진만치경제적으로유지난에빠저든일도한두번이안이며경영자간의 의견충돌도빈번하야 내용충실상유감된바만허섯든대 금년일월중에 유지청년마종연(馬鍾珪)씨가 그경영을 인수한후로는 마씨의가족이 총출동으로 일백팔십명의만흔 무산아동교양에 침식을이저버리고 열중종사하야지금은 보통학교사학년제의 긔초가 완성되고 일반유지의 후원으로 경영방침도점차 구체화하게 되엿다는데 또다시 지난이십오일 오후팔시에동학원학부형들이모이여 후원회를 조직하고금후경영상 적극적후원을 하기로되엿다는바 피선된임원은 회장최병현(崔炳玹)부회장김삼남(金三南)제씨라고한다

上豊簡易校開校

【泰川】평북태천군 동면상풍동(東面上豊洞)상풍간이학교(上豊簡易學校) 개교식은 지난이십구일동교립시강당에서 성대히 거행하엿다한다

李圭南氏特志

【鴻山】충남부여군홍산면 홍연리(忠南扶餘郡鴻山面鴻淵里)리규남(李圭南)씨는금년면내극빈자삼백명의일긔호세금액백여원을대납하얏다고한다

自己土地를抵當 貧民救濟의美擧

吉州郡下에 金、許兩氏

【吉州】사선을것고잇는 빈민에게 자긔의가진바 토지를 방매저당하야 구제하엿다는 고마운사람이잇다＝갈스록 심각화하는대중생활의궁핍 농업공황이 나은농민생활의 극도의처참한상태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의 흉작으로 궁핍한자를 응켜지고 기아선에서 방황하는참상을 참아 볼수업다하여 길주군 덕산면 지산동(吉州郡德山面芝山洞)김기홍(金基弘)씨는자긔의 가진바 토지 몃필을 원에 방매하여 동면 내에서가장 생활의 처참한 만어리촌(晩魚里村)이십여호 빈민에게무리자로 대부하엿스며 역시덕산면지산동(德山面芝山洞)에 잇는허서(許瑞)씨도 금천(錦川)지에거주하는 진모(金某)에게서 백원을 채용하여 지산동궁민에게 분배하여주엇다는바 이두분의 고마운사업에대하야 원근인사들의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明川郡下에 崔泰崙氏

【明川】명천하가면 (下加面)일대에는장변희유의대흉작으로 인하야 삼백륙십여호가 방금 긔아선에서 방황 한다함은 긔보한바와어니와 이제 각동유지자들은 그들의 구제에 활동하고잇는중 동면양상동(同面梁上洞)최태륜(崔泰崙)씨는 자긔의소유토지를 화대금융조합에저당하고 삼백여원을 대부하야백미와소미를 구입하야 동리첨양빈궁가삼십여호에 배부하엿다고한다

平壤에又復大火

木工所等二層二戶全半燒로 損害는一千五百餘圓

【平壤】수십년이래 처음보는서문통(西門通)대화재가잇슨후호구시가 부민들의 화재에대한신경이날카라운이때 지난사일오후 열시이십분경 전번대화재장소에서 거리가 멀지안은 장별리(將別里)일백륙십일번지 목공소(木工所)리학인(李學仁)의처 김씨(金氏)의 실화로 발화되여 동가옥일이층과리접한 매일신보지국(每申支局)을반소한후 소방대의 민활한활동으로동사시십분에 진화하엿다 손해는 건물오백원아래층금화서점(金華書店)상품일백원매신지국(每申支局)삼백원합계일천오백원인바 리학인의처 김씨가방심한소치로 초물불켜노앗든것이대때밥우에 쓸어저인화한것이라한다

前士商會社遺產 處分問題로紛糾

結局은訴訟질까지

【木浦】전사상회사유산(前士商會社遺物)로 목포부내남교동(南橋洞)삼백십삼번지에잇는 삼백칠십삼평의지대와 그건물의시가칠천원의재산을싸고 예전사상회사사원으로생존한자와 그유족들사이에 그와가튼다른이십구인을거리내여야옷한 소유권이전등긔수속리행청구(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소송이 지난이십팔일오전열시에 목포법원제일호법정에서 굴부(堀部)재판장주심과류중천(柳中川)량판사의배석하에 개정되엿다 사건이 심수번을두고 목포조선인사회에 여론이만흔사건임으로 방청인도상당히만한중 원고박한근、김호섭(朴漢根、金浩鐵)등칠인을대리한 김영수(金永洙)변호사의 『이토지를 목포사회교육긔관에제공한다하여도 다수한소유권자중에는 사망혹은행방불명자가만키때문에 소송을제긔하야소유권을등긔하여야한다』함에 대하야 피고문치명(文致明)등이십구인을 대리한 김성호、박찬일(金聲浩、朴燦一)량변호사는 『교육긔관에제공할 본의가트면 현재교육에 사용하고잇는것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러히 소유권을주장할리유도업스며 그러타하여도 쌍방이 협의상 해결할문제를비용드려가며 소송할필요도 업지안나냐』하고 반박을하야 원피고의론전은 장시간에긍하야 격렬하엿는바 이사건이 목포사회에대하야 중대성을 가진리유를 든건대 전긔사상회사(士商會社)는 목포개항직후인 삼십여년전 위 륙십명객주(六十名客主)의단체로 현재상공회의소에 해당한 긔관으로 명칭을 사상이라함은 실업과 교육을의미한것으로 사상회사정관에는 사상회사간판과 사상학교(士商學校)간판이 부터잇섯는데 사상학교는 일본류진하야 육영중학교(育英中學校)로 되엿다가 일한합병 당시에 총독부명령으로 조선인 재래단체는 강제로전부해산을 시키는바람에 사상회사도 성질상사회가 아니오 동업합회(會)라하는 견해에서 해산의비운을 당케될뿐아니라 육영중학교도계속하야 폐교가되고 그대신간이상업학교(簡易商業學校)가 되엿다가 다시목포상업전수학교(商業專修學校)에합친후에는 공립보통학교부속인 유달(儒達)학교로 휴야하으로 현재에는상업전습학원으로 이러케연혁이 기픈력사적 유래가잇슴으로 목포조선인의공유물로인식이 기픈일반은 그개인의소유로는 불가하다는 여론이놉파서 전사상회사사원과그유족중에도 긔개인의소유로하는 것을 반대하야 김성호、박찬일량씨를변호사를대리인으로하야응송한것이라는데 다음공판은 오는 륙월십일일로정하고 오후한시에 매정하엿다한다

大田支局主催의 自轉車競技大會

最高覇權은李潤白君

【大田】본사대전지국주최 제삼회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일일오전구시반부터 당지운동장에서 거행하게되엿다 오전중에각종경기예선에서 추려뽑은맹장들이 최후의승리를 목표로돌진할때마다 무려만명을 돌파하는관중들을 도취케하엿다 이날중에는 전조선각지에서운집한 강호(强豪)들을 용이하게물니치고 배재고보(培材高普)사년생 리윤백(李潤白)군이 영예의 패권을잡게되엿다 그리고 과거십삼년간지 최종을모르든사계의로장엄복동(嚴福童)군이 번외경기에 씩씩한용자를 나타내여 만장의환호와 갈채를 바덧다·이리하야 오후여섯시까지에 전종목의경기를마치고 동지대회회장 권경능(權慶陵)씨로부터 우승자에게 우승긔와상품을 수여하니 이로써제삼회대회는 원만히 도서향긔에 종막을 고하엿다

◇幼年三輪車리五十米決勝 一、朴洪來 二、崔昌均 三、韓鎭東
◇女子五千米決勝 一、矢島悅子(新灘津) 二、金彩玉(大田)
◇三流一萬米決勝 一、金鍾文(全州) 二、金一權(公州) 三、申
◇二流一二千五百米決勝 一、金容七(平壤) 二、裵德賢(金泉) 三、千點用(全州)
◇一流一萬五千米決勝 一、李潤白(京城) 二、金明俊(新義州) 三、朴尙憲(錦州)
◇全大田決勝 一、金成云 二、尹八龍 三、金成萬
◇番外 一、嚴福童(京城)
寫眞…大會와授賞式光景

咸南文川郡內에 一面一校制完成

【文川】함남문천군은 오개면으로 삼면에는 공립보통학교가설치되여잇슬뿐이든바 작금량년에 나머지두면에도 공립보통학교가설치되여 일면일교제가완성되엿다한다

咸興市民運動會 終始紛糾로一貫

主催側의準備不足이엿든가? 三町退場等醜態百出

【咸興】함흥상업회(商業會)주최의 제사회함흥시민 대운동회는 예정과가티 일일오전 구시부터 함흥공설운동장에서 회장 황항식(黃恒植)씨의 개회사로 개막되여 될수록 원만을긔하는 각정선수들과 각정응원단들의 열광적응원에 활긔를띄엿스나 주최측의준비부족이 원인인지? 회장은례년에볼수업던 무질서한 상태를일우엇스며 경긔마다 심판(審判)에대한 불평으로 각정대표사이에 시비분쟁이부절하고 잇더니 결국소포경기(小包競技)에이르러 대화정 본정 복부정(大和町 本町 福富町)은심판에 불평을부르짓고 퇴장을 단행하는등 불상사를 이르켜 상서롭지못한 사태를 연출하엿는데 이러한분요가운데서 오후팔시경에 겨우 폐회되엿다한다

兩洞有志蹶起 救窮에猛活動

【明川】명천군하가면돈전、석구(明川郡下加面屯田、碩邱)량동에서도유지자십여명이지난오월이십칠일오전구시에 회합하야동리궁민구제대책을 협의한결과 자긔들십여명이 연대책임으로 화대금융조합(花台金融組合)에서오백여원을 대부하야 식량을구입하야극빈가에 배급하기로 결정하얏다고한다

그女子의一生

婚姻篇　春園 作　夕影 畵　【124】

『아부지두。 늙은이가 그게 무슨 체신머리야?』

하고 금봉은 짜징을 낸다。

『사람이란 두 가지만 업서지면 할수업나보더라。 무어이두 가진고하니 첫재는 양심이라는 혼이업서지고 둘재는 명예라든가 체면이라든가 하는 세상두려워하는 마음이 업서지고보면 아버지처럼 되는단말이다。 나이를 암만 먹어도 쓸데업는 모양야。 너두 양심과 명예감──이 두 가지만 다 일허버리는 날이면 무슨 일은 못 할줄 아니?』

하고 인현은 누이를 물끄럼이 바라보더니、

『너는 아직 그것이 좀 남앗지?』

『아이 옵바두』

하고 쉬파람 한숨을 쉰다。

『사람이란 양심과 명예감을딸아서 사는것이 두가지가 잇서。 그것은 먹고하니 돈과 계집─ 사내로 치면 말이다。 아버지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판계안 된 때에는 점잔도 잇고 염치도 남만못지안커든。 헌데 돈이나 계집이라면 고만변심이 되고마신단말야。 나는 행인지불행인지 어머니가 돈욕심이나 계집욕심이업시 나하주섯스니까 코게지옥갈일은 못해보고 말것갓다마는』

하고 잠깐 주저하다가、

『너는、너는웬 미인으로는 태어나서、또돈욕심도、아버지를좀 덜마서、늘마음이 안노힌다』

하고 금봉의 실심한 얼굴을바라본다。

금봉은 숨이갓브고 얼골이화근거림을 깨닷앗다。 인현의말이 수업는 바눌이 되여서 전신을 속속드리 푹푹 찌르는것가티아팟다。

『쓸데업는 말을만히햇다』

하고인현은 혀수룩한 머리를긁적거리더니、

『그런데 대관절 네남편은 무얼하다가 못들러갓단말이냐 인제는돈도수십만원 잇다니 떠사괴롭할일요도 업슬것이고。정치운동으로 못들려갈 위인도못되고─대관절 어찌된일이냐』

하고말머리를돌린다。

『나도 몰나요。』

하고 금봉은 끈경에서 빠저나온것만 다행이 여겨서 마음을퍼며、

『재산은 한푼 안남기고 다업어졋대』

하고 제가 김파진헌테서 만원어어오던 전말을 말할까 말할까 하다가 양심에 걸려서 구만두고、따라서 생긴 내외싸움에 관한것도 건드리지아니하고 다만 명규가 며출ㅅ동안 근심하는 빗이 잇더니、그리고는매출 집에를 안 들어오더니、경찰에서 가택수색을 와더란 말을 하고、

『그러、옵비 내가 어떠케면 조아요?』

하고 의논을 하엿다。

『재산이 다 업서젓서?』

하고 인현이가 뜻잇는듯이뭇는다。

『으응 다 업서젓대。』

『다 업서지는것도 모르고 잇섯서?』

『몰라。 내가 어떠케 아우?』

『네 명의로 잇는 재산을 네가 몰라?』

『웬 내 명의로 해 주엇나 날 속엿지』

하고 금봉은 김광진의 별장에 갓다 온 날밤에 명규와 싸우던것을 긔억한다。

『그 돈은 무엇에다 다 썻서?』

『물으지。 누가 아우?』

『물어보지도 못해? 손가헌테』

『말을 하나』

『그럼 어떠케 알앗서?』

『김광진이가 그러더라니깐。』

『김광진이?』

『그、저、김자작 아들말야。 성북동』

하다가 금봉은 멈춤 말을 끈는다。

『김광진 네가 어떠케 아니?』

『우리 집에 놀너두 왓서。』

『집에 놀러와서 그런 소리를 해?』

『아니、내가 그집에 간 일두 잇지。』

『네가 그 집에?』

하고 인현은 의심스러운 듯이 눈을 크게 뜬다。

『손이? 무엇하려。』

『옹 손이 갓다오라고 해서 갓서요。』

『돈 푸령、난 웬 가려는지 몰랏지마는 가보니깐 그 일이야 돈 때문。』

하고 금봉은 한숨을 쉬이며、고개를 숙이고 치마ㅅ고리를 만적거린다。

祝 朝鮮日報清風分局發展

堤川郡淸風面公 淸風公立普通學校
淸風郵便所
淸風駐在所
淸風金融組合 朴鍾聲
同上 朴宗善
公醫 韓鎭國
韓一釀造場
淸風旅館 閔舟惠
煙草耕作組合駐在員 崔根潤

當選謝禮
今般 宣川金融組合役員改選에際하야 組合員諸氏의後援과總代僉位의愛護로當選의榮을입엇사기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四月二十日
評議員 李炳夏 金基浣 車鎭浩 朴炳協 田英模
監査員 金基輔 田文坎 田渏昇 魯淵豊

當選謝禮
今般 固城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光榮에浴하엿슴을玆以紙上으로謝意를謹表하나이다
德元忠三 李瀅權 李始榮 伊澤富彥 李甲用 金鍾注 朴昌淳 井上義雄 李判洙 文性律 李萬奎 (無順)

當選謝禮
今番唐津郡高大面協議員改選에際하야 本人等이當選되얏삽기 有權者諸位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李源萬 申鼎均 車炳台 金基鴻 金玉坤 孫亮秀 孫明在 孫仁在 柳寅元 梁禹錫 (無順)

當選謝禮
博川面協議員 坂本幹平 趙光賢 李龍洙

當選謝禮
謹啓今番生이本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光榮을蒙하와 삼가其意를紙上으로謹謝하나이다
襄陽郡降峴面面協議員 尹洪珍 朴敬夏 李昌玉

當選謝禮
今般金川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 一般有志의聲援下에本人이當選되엿삽기紙面으로謝禮하나이다
金鎭聲

當選謝禮
江界邑會議員 橋安冠 本部立 宗繁長 澄雄吉

三十一日より大公開 主催 全朝鮮陸上競技協會
パラマウント製作日數五ケ年出場人員二萬人 大スタアを以て全能力を傾倒せる巨大篇!! 名作『モロッコ』出でて五星霜 沈滯の映畫史上に再び上る怒濤激浪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監督ラルフ、マーフイ 主演ガートルド、マイケル
▲銀鼠流線型
二、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監督ヘンリイ、ハサウエイ 主演ゲーリイ、クーパー フランチヨツト、トーン
▲ベンガルの槍騎兵
忠誠天を貫き詩情に香る栄光不滅 死線に躍る武人の姿! 故郷を遠く離れた炎熱ベンガルの大草原に深紅の長槍一丈五尺!! 殷々たる猛夫の意氣と魂!! 守る非常の破壞の中に御國を 友情と忠誠の二道に生きて散陣に 花と散る武人の雄々しさ!! 烈々として頰を傳ふるは男の涙!!
次週封切の歐洲映畫▲アラン 私と女王様
浪花館

六月五日より名畫封切週間 晝夜二回興行
コロムビア會社超大作全發聲日本版 로스라다氏大作品! 兄은世界에第一
RKO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리이엔라이드氏 監督
七時가되면죽는다 재스라!─모리스氏 비비안오스본 主演
陰險凄慘!戰慄!七時면죽는다는 怖字의亂飛!!神人이驚愕할飛機內의殺人으로事件은複雜又多端!! 興味百%의自信篇
大都映畫社特作時代活劇 躍る鬼神 金田繁夫監督作品! 阿部九州男 大岡怪童 木下雙葉 主演
優美館

"米生產費紛糾"에 反對에 對한 反駁

申泰翊

朝鮮米生産費가 石에 廿七圓卄錢이란것은 不當한 높은 값이라고 해서 東京에서 열니엇든 外地米生産費調査會는 無期로 延期가 되고 말엇다 이를 떼어서 朝鮮米生産費問題를 가운데 노코서 朝鮮總督府側은 그廿七圓卄錢이 正當한生産費라고 어데까지 主張하고 이것과 反對로 農林省側에서는 일부러 實狀以上의 노픈값을 맨든것이니 다시 正確한 그生産費調査의 資料를 提出하라는等 結局 두편의 對立이 激化케되엿다

×

그런데 오늘에잇서 朝鮮米이나 臺灣米의米生産費를가지고 무슨까닭으로 그처럼 問題를 삼어 紛糾를 보게되는가함을 말하라면 自然히 그동안 떠들든 米穀根本的 對策問題로 도라가지안을수가 업다 卽 米穀根本的對策으로 만코 波瀾曲折을 거듭하든끝에 겨우 米穀自治管理法案으로 議會를 보아가지고 最後의 決定을 지으라고 지난 議會에 上程하엿든것이 流産되야 그實現을 보지 못하고 만것이 아닌가 그래서 結局에는 一向 米穀根本的對策의 無樹立狀態로 되여오는터이다 그러나 이것은 表面만 보고하는말로 그裡面에잇서 依然 今年米作如何로는 다시 自治管理問題가 論議케될影響가 多分으로 잇을뿐만아니라 要는 오늘에잇서도 그實現을 目標로 하고 着着 裏面的準備工作이 繼續하야 進行되고잇는것으로 볼수도잇다

×

그럼으로 이準備工作中의그 하나인 外地米生産費 問題가 論議가 되는것이며 떠구나이것은 만약 自治管理의 實現을 보게 되야 朝鮮米가 買上케될 境遇에는 이買上價格의 基準을 그生産費에 置重키로 되어잇는만큼 生産費決定은 重要性을 띄이게 되는것이 이곳에 큰理由가 잇는바이다 이와가튼 外地米生産費問題에 對하야 農林省으로부터 朝鮮米 不利를 眼中에 안두고 어데까지 日本內地米側에 有利한 結果가 되도에그 低價를 主張할것은 當然한일이다 어것은 왜 그러냐 고하면 從來 農林省은 될수잇는대로 外地米를 差別하라든 것의 傳統的 態度가 밝히알려여주고 또는 過般 米穀局長이 朝鮮에 건너왓을때에 그는 表面으로 公平을말하면서 裡面에잇서는 朝鮮米를 差別케할資料만 收集하여 가지고도라간것이 아닌가 이것만가지고보드라도 오늘에農林省이 朝鮮米 生産費廿七圓卄錢을 그以下低價로 나추라고 얼마나偏見의手段을 쓰고잇는지를 可히 짐작할수잇다

×

農林省에서 朝鮮米生産費 廿七圓卄錢에對하야 大體어떠한點을 가지고서 不當한高價라고 反對하는가 하면 다음과가튼네가지의點이다 卽

(一) 朝鮮農民의 生活程度가 日本內地農民보다 低級이라는點

(二) 朝鮮農會費用이 얼마안든다는點

(三) 賃金이 顯著히 低廉하다는點

(四) 昭和六年朝鮮米生産費가 十六圓八十四錢이엇든것이五年間에 그처럼廿七圓卄錢으로騰貴되엇다는것은 到底히 肯定할수업다는點

等을 들어서 朝鮮米生産費가 正確한數字가 아니라고異議를 하는것이다그러나이것은 아닐로 認識不足을 지내서 其條의偏見이라고 말할수업다 왜그러냐고 하면 그農林省의 反對에對하야 다음과가튼反駁의點을 들지안을수업게되는때문이다

×

첫재로 엄밀히보면 朝鮮農民의生活費가 日本內地보다 顯著히 적을것가티 생각할것이나 實際에는支出이 相當한點

둘재로 朝鮮農會도 조개집으로 費用이 적게들것가트나 거의每年정용을 이게되고또는 灌漑修理其他學의費用이 적지안타고 할수업는點

셋재로 賃金이적은것이 事實이나 賃金外에 四五次食事와 其他於ㄴ福利入의費用까지 합하와서 食事를 하는것까지 計算에 안는수업는點

넷재로 昭和六年 米生産費는 當時 日本內地人의 移民을 勸誘하라고 水原一農家의 生産費를 調査한것임으로이것을가지고 全體의 朝鮮米生産費로할수는 不當한點

×

그밖게 段當收穫高를 보면 朝鮮米는 昨年에九斗八升四合이엇슴에 對하야 日本內地米는 一石六斗三升四合으로 六斗五升이나 만흔터이다 이와가티 朝鮮米로서의特殊的事情을 생각지안코 오즉 二十七圓三十錢이란數字만가지고 너무 高價이라고함은 도리혀 일부러 朝鮮米로하여금 不利한地位에 빠지게하라는데서 생긴主張이라고 생각할수밧게업다

今年麥作收穫豫想 千百九十二萬餘石

西朝鮮生育阻害나 一般良好

比前年七分三厘增

【六日農林局發表】今年麥作狀況을 調査하면 冬期間 高溫으로推移하고 生育期에 드러가 西朝鮮地方에 寡雨乾燥로 生育이 阻害되엿外適雨로 作況이良好하야 作付反別의增加를 기다려 前年實收에比하야 八十一萬石(七分三厘)의增收가 豫想되엿다 卽六月一日現在의 收穫豫想高는 大麥八百五十四萬 七千六百四十九石 小麥百七十七萬六千二百十四石 裸麥百六十萬三千三百二十八石 合計一千百九十二萬 七千百九十一石으로 前年實收에比하야 大麥五十五萬三千六百八十石(六分九厘)의增收 小麥은 主産地인 黃海道及平安南道의 不作으로 六萬千五百六十七石(三分四厘)의減收 裸麥은 三十一萬八千百三十五石(二分四厘)의增收로 差引八十一萬一千四百四十八石(七分三厘)의增收이다

▲麥作付段別及收穫高累年表

年次	作付段別 大麥	小麥	裸麥	計	收穫高 大麥	小麥	裸麥	計
昭和五年	八六三、九三一、九	三四八、〇七九、七	七八、〇三九、八	一、二八〇、〇五〇、〇	七、五六七、八四九	一、八〇三、一五一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九〇〇、三四一、八	三三三、二九九、四	八三、二三四、七	一、三一六、八六六、九	七、八二一、三一七	一、七二九、四八二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八九八、五〇五、八	三三三、七五九、四	九九、三八九、五	一、三三一、六五四、七	八、〇〇三、八〇三	一、七八八、二八九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八八八、八三〇、八	三三三、二二六、八	一二四、五六〇、八	一、三四五、六一八、四	七、五八五、三〇四	一、七六三、二八七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八八七、九五三、九	三三五、六一三、〇	一四〇、二一七、〇	一、三六三、七八三、九	七、九九三、九六九	一、八三七、七八一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豫想)	八七六、二七五、九	三三六、七三〇、〇	一六三、四六二、七	一、三七六、四五七、六	八、五四七、六四九	一、七七六、二一四	一、六〇三、三二八	[illegible]
昭和九年實收에對하야同十年豫想增減(△)	△一一、六七八、〇	一、一〇七、〇	二三、二四四、七	一二、六七三、七	五五三、六八〇	△六一、五六七	三一八、一三五	[illegible]
同上步合	△〇割一三	〇割〇三	一割六六	〇割〇九	〇割六九	△〇割三四	[illegible]	[illegible]

▲今年麥作付及收穫豫想高前年比較

道別	作付反別 昭和十年(豫想) 町	同九年(實收作付) 町	比較增減(△) 町	同上步合 割	收穫高 昭和十年(豫想) 石	同九年(實收) 石	比較增減 石	同上步合 割
京畿	一二九、九四六、六	一二八、三六三、六	一、五八三、九	〇・一四	一、〇五四、三二九	九七六、八四三	[illegible]	[illegible]
忠北	八五、〇五四、六	八四、二三四、四	八二〇、二	〇・一〇	五五七、六六〇	五九一、〇八五	[illegible]	[illegible]
忠南	八二、六六〇、三	八一、六〇九、六	一、〇五〇、七	〇・一三	七六一、二七一	七五九、二九六	[illegible]	[illegible]
全北	八七、〇九三、〇	八五、三八五、〇	一、七〇八、〇	〇・二〇	七六〇、〇四三	八二三、七七四	[illegible]	[illegible]
全南	一七九、六〇五、七	一七六、一五九、八	三、四四五、九	〇・二〇	二、三三九、〇〇四	二、〇九一、〇五一	[illegible]	[illegible]
慶北	二四九、七九三、二	二五〇、一七〇、二	△三七七、〇	△〇・〇二	二、一五四、〇七四	一、九四一、一四五	[illegible]	[illegible]
慶南	一八二、八三八、〇	一八二、二九八、一	五三九、九	〇・〇三	二、二三五、九四八	一、七九八、五七四	[illegible]	[illegible]
黃海	一四五、八五七、四	一四八、五二四、九	△二、六六七、五	△〇・一八	八〇六、四四四	八七五、一一七	[illegible]	[illegible]
平南	六八、七九七、三	六六、四〇八、四	二、三八八、九	〇・三六	二九八、八八四	四四三、八三七	[illegible]	[illegible]
平北	六、〇三一、四	五、六五八、六	三七二、八	〇・六六	三八、六六八	三五、九六五	[illegible]	[illegible]
江原	七〇、一六七、八	六九、六九二、〇	四七五、八	〇・〇七	四八五、四四一	四二〇、五〇六	[illegible]	[illegible]
咸南	四三、六六四、六	四〇、四四〇、〇	三、二二四、六	〇・七五	二五七、六六八	二〇五、八〇三	[illegible]	[illegible]
咸北	四六、九三七、八	四五、八一九、三	一、一一八、五	〇・二四	二八七、七六四	一七四、九二七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一、三七六、四五七、六	一、三五三、七八三、九	二二、六七三、七	〇・〇九	一一、九二七、一九一	一一、一一六、九四三	八一〇、二四八	[illegible]

朝鮮米生產費 細目資料急蒐集

農林局의態度가相當强硬

어듸까지正確自認

昨報한과가티 朝鮮米生産費 二十七圓二十錢이 過高하다고하야 外地米生産費調査會가中止되엇든 昨報한바이어니와 朝鮮總督府農林局에서는 그生産費調査에關한 細目의資料를取集키로 되엇는데 이미 總督府로서는 日本內地와 가튼方式으로써 調査하야 正確한數字라고認하고 調査會에 提出한것인만큼 다시資料를 提出하라고하얏스나 亦是 二十七圓三十錢이 조곰도 틀님이업는 正確한數字임을 證明하는細目의資料를 收集케될것이다 그러고 農林局의 態度는 農林省에對하야 가장不滿을 가지고잇서서 一層愼重한態度로 그資料蒐集에힘쓰게될모양이다 그러함으로 七月上旬에 再開케될外地米生産費調査會는 더욱紛糾를 보게될것이라고한다

農林局長歸任

農產課長도歸京

朝鮮米生産費問題로 紛糾되外地米生産費「ㄱ」委員會는 實問을 于先中止하고 次回資料準備를 七月上旬開會케되야同委員會에 出席한 瀨東中의矢島農林局長은 七日 山澤農産課長、石塚技師는 八日東京發歸任키로되엇다고

佛政局混亂 金流出激甚

公債暴落을出現

【電通巴里五日發】佛國政府의 混亂을反映하야 佛國의金海外流出은더욱激烈케되야 五日午前에向하야 出帆하엿는데 마제스틱號는 그船倉中에午前의 金塊約十噸을 積載輸出하엿다 그러고 株式市場에서는 佛國의公債는二乃至三프랑의暴落을나타냇다

米國向不可避

【電通巴里五日發】五日의巴里爲替市場은 法價가軟調로 始하고 對英七十法四分一、對米十五法十五를唱하엿다 그래서 다시米國向의 金流出은不可避로 觀測된다고한다

爲替平衡資金 英國不使用

▲…쳄벌렌藏相言明

【電通倫敦五日發】五日下院의質問에對하야 쳄벌렌藏相은알에와가티言明하엿다 英國의爲替平衡資金은 佛蘭西의法貨下落을防衛키爲하야 한푼도使用되지아니하고 또이때문에特別한賣買도안햇스며 右資金은專혀磅貨의變動乃至下落對策에만 利用되어잇다

길다貨昂騰이

【電通암스텔담五日發】五日當地의爲替市場은 英磅에 繼續昂騰하야 對英七길다三四對米四六仙八分一이되고 五日다시金輸出標準을廻키로되엇스며 一面佛國의法貨는 多少軟弱을 唱하엿는데길다貨는强調이다

滿洲幣制統一協議

【東京電話聯合】大藏省에서는關東軍財政顧問 荒川昌二氏의歸國을機로 五日午後에金融財政懇談會를開催하고 主로滿洲國財政狀態에對하야 荒川氏로부터報告를聽取하고 滿洲國의幣制問題에對하야協議하얏다 今後는對滿事務局側과의 連絡을取하야 日滿金融統制의 根本方針樹立에向하야 協議하기로되엿는데 日本政府로서는 어데까지던지 愼重한態度를取하야 急角度의 改革을回避할 意向이다 이에對하야 滿洲國側의 意向을로서는 銀貨의高騰에伴한 銀의流出에依하야 國幣는 漸次收縮함에 反하야金圓資本의 進出은 去益朝鮮銀行券의 流入을 擴大하고 그때문에滿洲中央銀行의 金融統制機能이去益弱하게되는結果此際滿洲에서의 朝鮮銀行券의 流通을抑壓하고 國幣로써 文字대로 統一하야 中央銀行의 機能을 定備하는同時에 更히 朝鮮銀行과滿洲中央銀行間에 貨幣同盟을締結하야 그對比價를一定케함에依하야對外價値의動搖를防止하고저한다 急進的의것인데 日本政府當局으로서는

一、朝鮮銀行券의增加는實際의需要에基한것으로 이實情을度外視하고 急히朝鮮銀行券을撤回함과如함은適當치안타

二、更히國幣의 對外價値暗히日滿爲替의將來는 滿洲中央銀行의準備가거의日本圓預金으로되어잇는事實로보아「파-」以下로暴落할念慮는업고 日滿金融統制對策으로서는急激한 變革이必要치안코 찰아리弊害라고認할것부터 漸次修整하며 쇄데업시政變을 急히하야 도리어混亂을招함과如함은避할方針이라한다

米日爲替反落

【京城五日發聯合】五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하면 賣二十九弗十八仙으로七仙低 買二十九弗十五仙으로五仙低

▲東京爲替(六日)

對米 二十九弗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一志二片八分一 一志二片三十二分五

▲大阪爲替(六日)

對米 二十九弗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一 一志二片三十二分五

經濟界消息

○米穀會館建設決定＝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米穀會館建設을 企圖하고 總督府當局에 京城俱樂部前의空地의 無償拂下를 陳情하엿든바 當局의諒解가 되엿슴으로 不遠着手키로 되엇스며 無償拂下或은 貸付가될는지는不遠正式으로決定할터이다 그러고米穀會館은 建坪約二百三十坪 工費十五六萬圓이라고

○熙川郡新興金鑛開鑛＝平北熙川郡葛峴洞 新興金鑛에서는 今

北鮮製紙工場地

雙龍에서水質調查

城津이有力說

北鮮製紙의 工場候補地는 吉州城津의二個所에限定되어 近間同社橫井專務의入京에 依하야 最後的決定을 볼터이라는데 最初有力하던吉州에對하야 最近主로交通、運輸關係로 再調査를行한結果城津說이 漸次有力케 되엇다 그러나城津도水質敷地等의關係로 아즉決定的이아니오 目下城津에가까운 雙龍附近에서水質調査를行하고잇스며 雙龍說도有力하다한다

運貨問題

朝郵方針決定

朝鮮米運賃界의 混亂에 直面하야 朝郵當局은 善處코저若干中인데 總督府當局과 協議한結果 當分形勢推移를 靜觀하기로 하고 新米出廻期의 情勢如何에 依하야 適當한 對策을 講究키로 되엇다 卽 新米出廻期에 入하야 依然今日에 情勢를 繼續한과如한境遇에는 斷然同盟會를脫退하고 補助會社의 使命에鑑하야 單獨契約에 邁進할意肚를 決定한것으로 推察된다 한다

全朝鮮郵貯額

人員金額皆增

全朝鮮郵便貯金의 五月末現在預入人員은 三百二十一萬一千九十一人、四千九百七十四萬二千百九十八圓으로 前年五月末現在에比하야 人員一割一分强、金額一割四分의各增加이다

今日財界 (六日)

◆米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㊂三等米 / 正租(仁川) 一石

◆市中金融 一般

◆商品 (先限前場)

◆株 東新 / 新新 / 日産

商況 (六日)

株式 反抗買로 暴騰

前場暴騰

今前場은 反抗買로 俄然形勢一變의 暴騰으로 日産이 先驅하야 七十六圓丁에까지 뛰어올르게되어 東新도百四十圓三十錢에 奔騰되어 大關門을向復하고 大新도 八十九圓八十錢의 高價를보인後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三圓五十錢高인 百三十九圓六十錢 日産四圓六十錢高인 七十六圓五十錢、大新一圓七十錢高인 八十九圓六十錢 朝新二十錢高인 二十五圓五十錢에各大引

▲大新 ▲東新 ▲日産

後場强調

後場은 東新百三十九圓八十錢 日産七十六圓八十錢、大新九十圓丁 朝新二十五圓六十錢、安取六圓五十錢 拓新八圓八十錢에 一息落後依然强調裡에大引

日產先驅奔騰

東新百四十圓

佛國內閣崩壞、北中形勢急迫等으로形勢다시不良하야 昨後場은日産부터더어저 七十一圓을再逃化인故로 今前場은四日低價를下廻하는慘狀이잇슬것도 가타얏스나 今前場은反抗買가나옴인지日産이먼저앞장서서 急返發調로七十八圓丁에까지奔進하야 四日低價에서 東京은八圓十錢戻當地는七圓六十錢戻를示現하엿스며 東新도百四十圓大關門을突破하야 東京은五圓六十錢戻當地도 五圓六十錢戻를보이는 活況으로形勢一變이엇는바이것은昨後場再樂込에反抗買로보이엇섯다 四日의低價日産六十九圓九十錢이란 더더러질餘地가업는것으로도 볼수잇고 설령軟派目標인 額面五十圓說에對하야서도 픽이것이實現되리란法이업스니 이미七十圓割까지잇슨日産은 底入되엇다보이는때이라고도하야할것이다

大勢는果如何

極度悲觀論不無

今前場好轉의勢로보면 四日의低價로서 底入되것으로도 볼수잇는데 그러면이로써 一路騰勢의「코-스」에入할것이나에 對하야서는 아즉도 疑問이업지안코 所謂大勢에對하야서 依然前途悲觀論이 解消되지안는 모양인바 卽如左하다

昭和六年十二月再禁止以來 九年上半期까지는「인푸레」景氣의 上昇이엇스나 九年下期부터는 爲替低 財政인푸레의 好響은出盡되엇고 「인푸레」景氣解消의 反動에入한터로서 지금

市場六感

株

今前場은强調를보이엇으나 依然四日低價가底인듯보이게되엇다 ▲그러나過賣反動外에는 買할언덕이라가업고 三三年繼續된「인푸레景氣」의反動의市勢로는 不足하니라 아즉도割高한東新가튼것이잇고 더구나 內外諸不安에다 赤字公債漸減方針下에 잇서는 買할마음은 하자 안는것이若何? ▲東新에對한東京地場의弱氣를 紹介하면 「東株의劉高物征伐이 끗나면 그다음은六割高는 東新에大禍必來로百圓內外가 잇고야말것이다」「東新이 下落하지만 [illegible]年十一月의 百十九圓九十錢을 깨치고말것이라고 大弱氣流行▲市場記者室內의 閑談一節을紹介하면▲인푸레바람에 取引員이못적을엇스나 인푸레反動이끗나기까지에는 적어도五六店은廢業할程度의 意外大慘落이잇고야말것이라고 記者들도 絶對悲觀에一致▲皮肉家는 人氣가이모양이니 이로써底入된것이라고할지모르나 아즉좀참으시오

米

恢復되엇든天氣는또다시降雨 植付期의用水는少毫도不足의憂慮가 업슬모양▲植付가 無難히完了되면又一落은免치못할걸▲그런데 連日下落狀態로 保勢를繼續하든各地市勢는 意外의暴騰을告하엿다 그原因은무어?▲本月부터는渡米蒐集難의嫌도不無하다거니 又는古米五十萬石을 北鐵의代價으로 露西亞에輸出한다는等모든 强氣說이 軟派가合을 서둘하게하엿다▲그래서軟派의損退와 硬派의追擊的買物이 現出하야不意의暴騰을 告하엿스나 本格的으로轉換된 市勢는아닌모양이다▲政府는高米價를 放任視하지안을것임으로不遠한時日에남어지百五十八萬石의拂下를하고야 말모양이니此를 輕視할수도업거니와臺灣米의移入이 이로부터 旺盛하게될모양이니 全혀度外視하지는못할듯▲果然阪地의田中貞一派와 潮先側의 最後決戰이 果如何?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昨後場實物高로 受하얏고 株式高와 相俟하야買氣旺盛되야 五分利債는 十錢高、佛貨도 二、三十錢高、米貨는强低의刺戟으로 一圓奔騰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三、八五▲一回四分利 九八、六〇▲二回五分利 九八、六〇▲佛貨四分利 一

實物前場取引

▲土地改良 ▲大同電力 ▲大同 ▲東洋拓殖 ▲北鮮製紙 ▲朝鮮製鍊 ▲川崎 ▲哈爾賓 ▲足利紡

正米頑强으로 當中一層頑强

政府古米의 拂下又는 臺灣米의 移入等 正米實勢의 壓迫說은 爲有에歸하고 本月부터 渡米蒐集難을 免치못하리라는說이 擡頭하야 阪地의 田中貞一派와潮先側의 絶對期近買進으로 先限보다도 當中兩限이又一層頑强하든

米 伸惱裡에 上進

前場續謄

昨後場 阪地二十九圓四十三錢止와 共히二十七圓十七錢에 越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四十八錢인 五丁高를 傳하고二十七圓二十七圓二十二錢인 亦五丁高로 大하야初付後 阪地稍高調로 六錢十八錢까지 昂謄하엿다가 五十五錢으로反落止景을作하야三十錢의高值를示하얏스나 中伸惱狀態로前引하다

後場伸惱

後場은 二十七圓二十錢에 始場後四十二錢까지 謄했다가五十二四錢에 强하고 別段가다 止揚하다

當分低落難望

續謄도亦難期

오래동안 二十六圓八九十錢臺에서 支離하게도保合不振이든當地市勢는 正米實勢의引締로軟派의恐怖的煎商와 硬派의絶對防戰으로 畢竟五六十丁의反撥을示하엿다 要하면 在來의意外潤澤을唱하야準月大受渡를豫見하게되든堂島市場으로서 本月부터渡米蒐集難의嫌이업지아니하리라는說을아즉 信할수업다 그理由는 日本內地米로의 渡米蒐集難의 狀態일것가트면 朝鮮米의買注文이續到할것이다그러나 朝鮮米의日本內地移出이不振됨을보아서 居住할수업섯다 何如間豐作의 豫第一回米는本月부터 移入의旺盛을告할것이며 政府로서도高米價防止에置重할는만큼 남어지百五十八萬石의拂下를斷行할것임으로 當分低落도 難望이어니와 續謄도도한期待키難한것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北鮮實收의 代價으로露西亞作地인 滿洲에對하야 古米五十萬石을 二十四五圓의 決價로輸出하기로되엇다는說이加味되어 下落狀態이든 各地市勢는 反撥을示하엿으나 露西亞에對한 五十萬石輸出은아즉具體化치안은모양이오

▲賣方 ▲買方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政府所有米古米整理 五十萬石整理가되고남어지 百五十萬石의 整理가잇스며今後의米穀事情을 推察하야 拂下續行하리라는데 第一次拂下米의消化될가지고 中旬後具體化될것이로보인다

買方 三木、山種、地場利息、朝鮮側、西側、地場正米側、來客側

賣方 神戸의升本、東京側別派 地場强氣側、神戶側、木村

各地正米

日本內地側의入注輻輳

京仁五十五錢高

京城反撥

定期高로入注가旺盛하야 投機所待側의 强硬으로 商談이 마지안코 氣配는一氣로五十五丁高 丸仁三等二十七圓丁 四等二十七

仁川爆發

昨今의 日本內地의 當限買行良好에다가 今朝阪地의當限 準備物가튼 大口入이 到來로 四三十錢 一等白米二十圓二十錢

釜山硬化

市場實物二千叭 淸算의强調를移하야 日本內地側의買注文이 散見되나 一般賣方이 實需治안코 氣配는硬化하야 一、一四六叭의 取引이잇섯다 三等二十七圓五十錢 四等二十七圓 一等白米十一圓六十七錢

大邱堅調

一般商人 上高價唱이오 取引이 進捗되지안하나 期米의 好轉을 移하야 人氣는 小康에 同復되고 堅調를 보한가 三等二十七圓二十錢 四等二十六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三十五錢

群山騰聚

廻着三千叭 産地出廻一巡이되다가 農繁期의關係上 實物이 업고 淸算期近高로 入注旺盛하야 오래간만에 場面에活況을 呈하야 氣配一氣로 三十五丁 暴騰을告하얏 三等二十七圓七十錢 四等二十七圓五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木浦奔騰

出廻一輛、期米高를보고 市況이 硬化하는 一方日本內地定期의 注文이 相當히 豊富히到來되어 氣配三十錢引締이나實物薄으로 取引은 잘되지안엇다 丸ホ三等多聚二十九圓三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雄町三等二十七圓七十錢 四等二十七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南浦引締

場面實物 薄으로 依然 取引이 안되나 期米高에 追隨하야 十錢引締 ⊕鮮毛三等二十七圓六十錢 四等二十七圓四十錢 一米白米十一圓四十錢

金融 六日

◆海外經濟◆ 5日 / ◆朝鮮銀行券◆ 5日 / ◆日本銀行券◆ 5日 / ◆京城手形交換高◆ / ◆東京金利◆ / ◆大阪金利◆ / ◆對外爲替◆ / ◆金價入額◆

期米 六日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正米標準價◆ / ◆京城雜穀◆ / ◆仁川大豆◆

商品 六日

◆京城綿絲布市勢◆ / ◆京城綿布◆ / ◆夏布類價◆ / ◆日本麥粉市勢◆ / ◆시카고期麥◆ 5日 / ◆鰊油沖價◆ / ◆鰊搾粕沖價◆ / ◆滿洲商況◆ / ◆大連特產市勢◆

(廣告) 朝鮮取引所 取引員 株 米 王 金 ○ 梧商店 電話

株式 六日

◆朝取短期◆ / ◆朝取長期◆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東京現株◆ / ◆東京短期◆ / ◆東京短期取組◆ / ◆朝取短期賣買高◆ / ◆清算代引日步◆

期米 六日

◆朝取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朝鮮內各地期米◆ / ◆大阪期米◆ / ◆大阪期米取組◆ / ◆大阪市中在米高◆ / ◆東京期米◆

商品 六日

◆大阪綿糸◆ / ◆日本各地期米◆ / ◆大阪棉花◆ / ◆各地人絹◆ / ◆橫濱生糸◆ / ◆大阪砂糖◆ / ◆海外砂糖◆